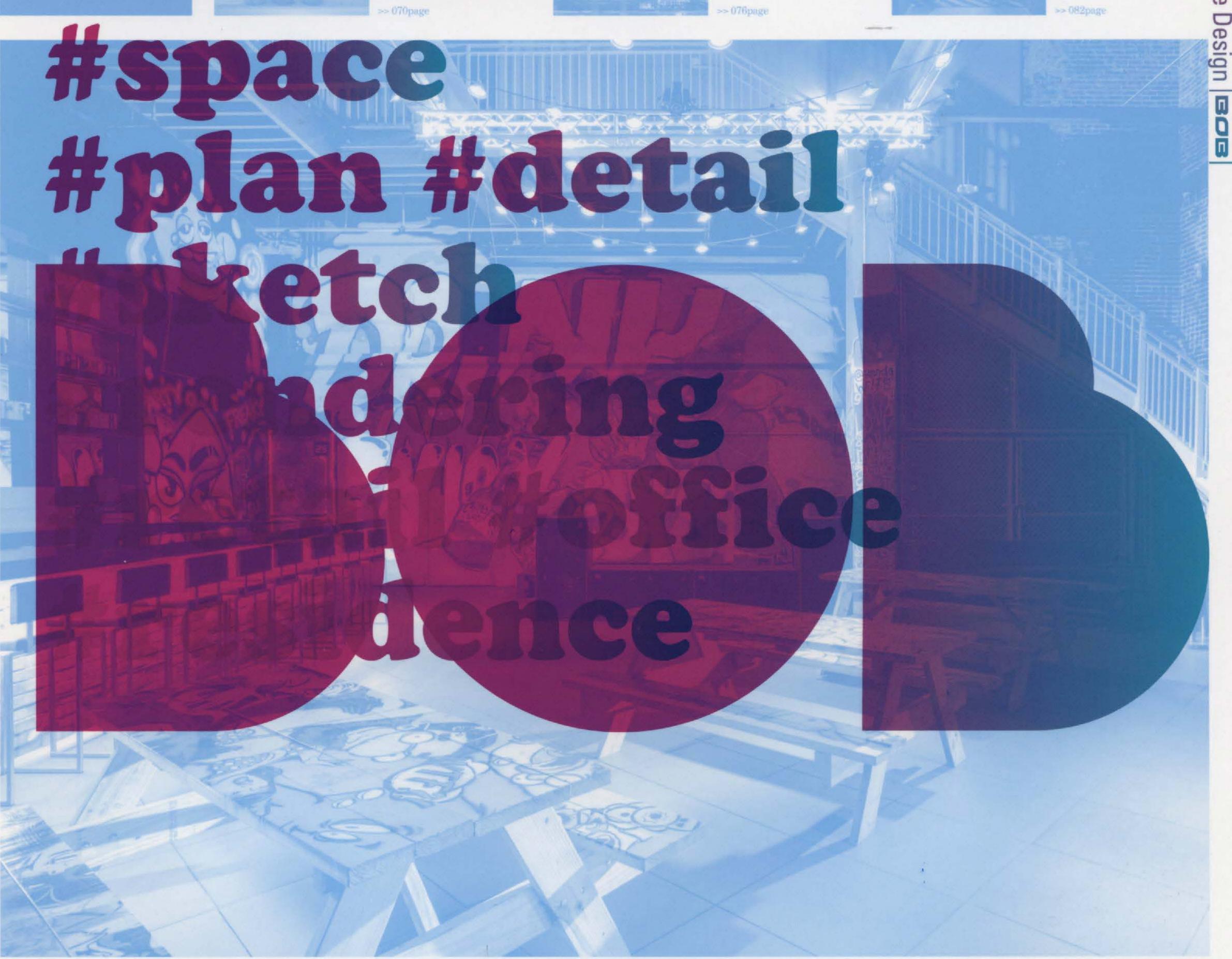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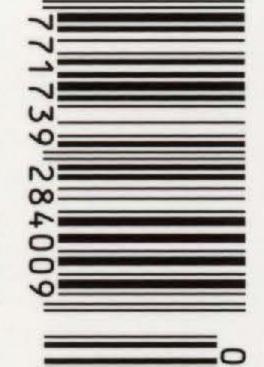
Rivaling rooftop F&B outlets in Los Angeles, New York City, and Miami, this space is the city's first rooftop bar and lounge. As an upscale casual concept it is surrounded by a panoramic city skyline...





BIGTIME DESIGN STUDIOS PITER LOFT YEMEK- STUDIOS SEPETI. COM OFFICE | SWEETIE SALAD RESTAURANT

om BOB Coordination SARIT SHANITHAY tage you feel the

is on the sight of a former gas

between man and music. As soon as onBOB Collection track wall

par. The bar top is butter squash

laminate reminiscent of Grandma's kitchen. The rock wall was restored to a flagstone appearance with each

bass from massive speakers hidden behind custom made, oversized speaker grills designed to mimic the look of L100 speakers of the 70s. Approaching he stairway to the 2nd floor you pass a 1.5m tall Tab can. The same can of pop made popular in the 60s. Upstairs the vibe becomes intimately nostalgic. Wood paneled walls, vintage furniture, a 4.8m faux record

console and bookshelf tease the DJ to pull out his record collection. Adorned with tchotchke pieces and vinyl records the bookshelf is the main feature of the room. A chevron nottern laminate top and red tufted

leather bar d corner is a beer in a friends base the spaces offer s



DESIGN STUDIOS

Bigtime Design Studios: Bigtime Design Studios is a Miami-based boutique design firm with focuses in hotel design, restaurant design, bar and nightclub design. Recent accolades include finalist at the 2018 Hospitality Design Nightlife Awards for Rooftop @1WLO, 2018 Top ID Award from NEWH, 2018 German Design Award Winner for Township, 2017 Structure Awards for The Que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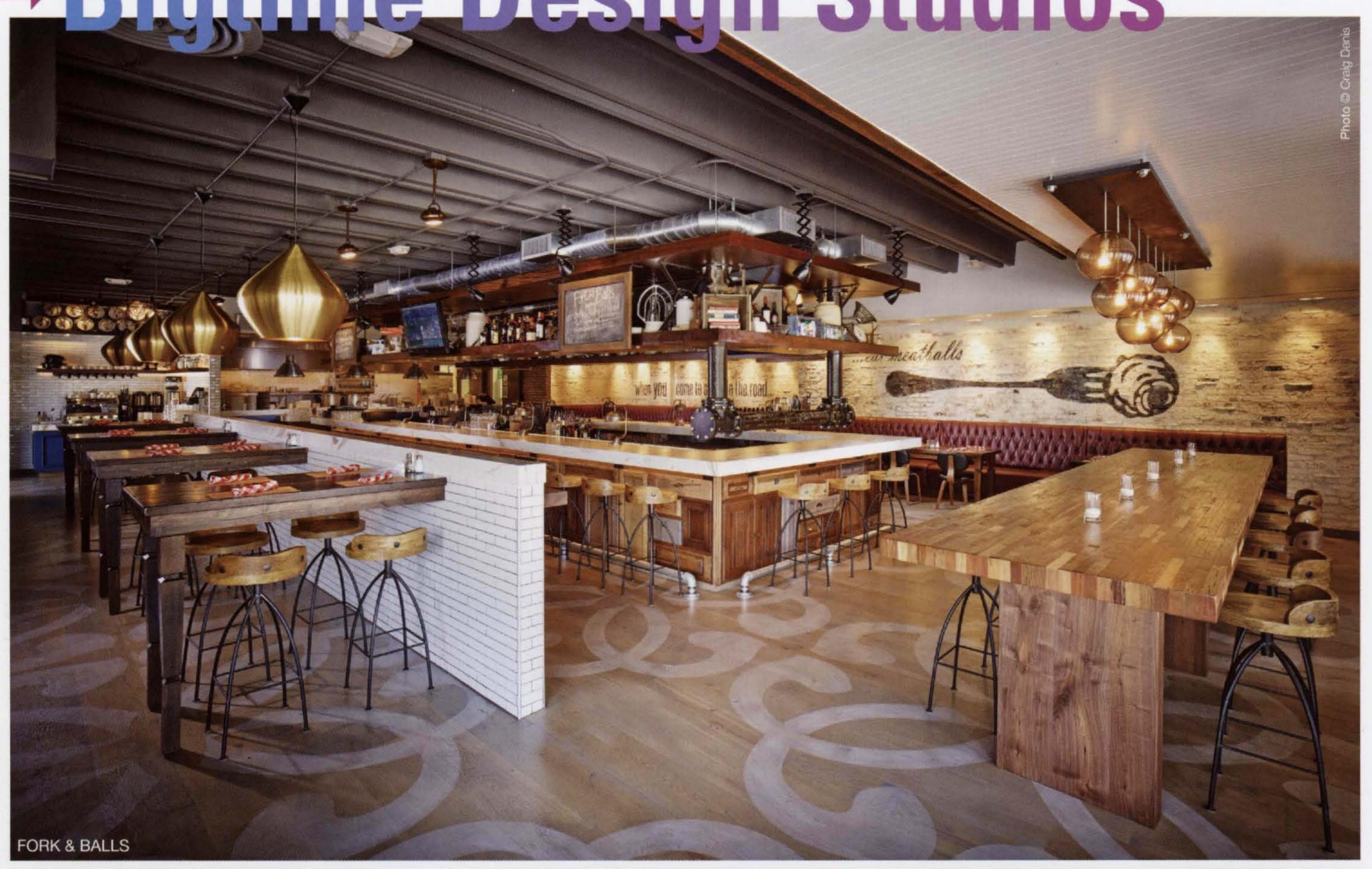
Interviewer & Editor : Kim Eunji

박타임 디자인 스튜디오: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소규모 디자인 회사 빅타임 디자인 스튜디오는 호텔, 레스토랑, 바, 나이트클럽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다. 최근 2018 하스피탈리티 디자인 나이트라이프 어워즈 최종 후보로 오른 루프톱 @1WLO, NEWH가 선정한 2018 톱 ID 어워드, 2018 독일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받은 타운십, 더 큐로 2017 스트럭처 어워즈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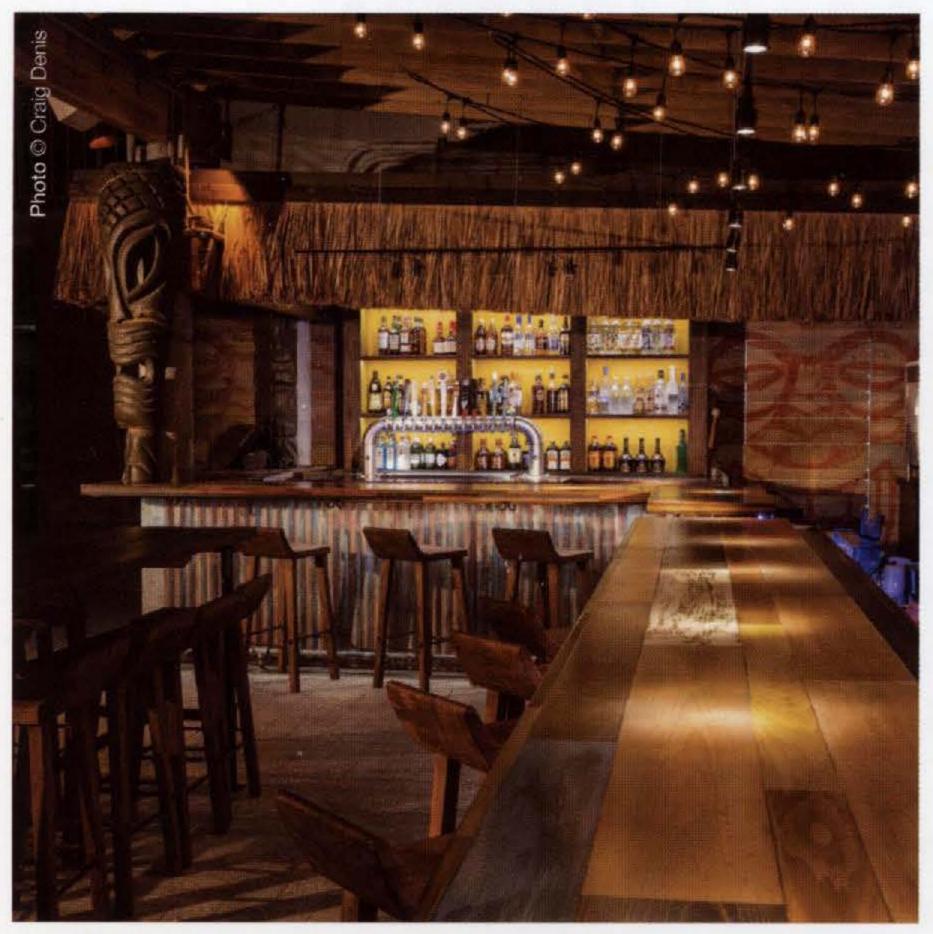
있다. 취재 글: 김은지 기자



Bigtime Design Studios







TIKI BAR

Bigtime Design Studios is a creative group that is not bound to a definite way. They create a style that will last a long time in people's memories that are active in various fields such as restaurants, hotels and nightclubs by applying each of the necessary elements that are separated by space usage. In addition, they try to include the story in space to create exclusive uniqueness and atmosphere for each project and to draw reaction. Among them, the appearance of <Cash Only/Chop Suey> decorating the entrance wall is remarkable while the old fashioned accessories are harmoniously combined. And it offers intense visual effects with antique elements, customized lighting and colorful graffiti all over the place, and it also shows a unique space that reveals the sensitivity of Bigtime Design Studios. By contrast, <Postcard Inn Resort> welcomes people with an extremely comfortable and natural appearance. The lobby is designed with planned pattern, configuration and recycled materials to allow local feeling. Their performance is very anticipated who wish to meet the needs of the clients and add value to every project.

Bigtime Design Studios deals with various fields of design including interior, branding and logo design. Is there particular reason or purpose that you have started with these various design? We believe that design driven concepts are akin to a great book. They should be savored one page at a time. When we create a concept we begin with what is sounds like, not what it looks like. When we can articulate what the story is only then can we design the process with which the pieces all start to make sense. By incorporating all facets of the design process, including branding and identity we can control the brands message through the entire process.

박타임 디자인 스튜디오는 한정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 집단이다. 레스토랑, 호텔, 나이트클럽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공간 용도별로 구분되는 각각의 필요 요소를 적용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스타일을 창출해낸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독특한 고유성과 분위기를 연출하고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공간 안에 이야기를 담아내려노력한다. 그중 〈캐시 온니/촙 수이〉는 오래된 정취가느껴지는 소품이 조화롭게 어우려져입구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리고 내부 곳곳에 배치된 골동품 같은 요소와 맞춤 제작된 조명, 다채로운 그라피티로 강렬한 시각 효과를 선사하며 박타임 디자인스튜디오만의 감성을 드러내는 독자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스트카드 인 리조트〉는 지극히 안락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로비는 지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적인 패턴과 구성, 재활용 자재가 사용됐다.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 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보가 사뭇 기대되는 바이다.

박타임 디자인 스튜디오는 인테리어부터 브랜딩, 로고 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데, 이에 대한 특별 한 계기나 목적이 있는가?

우리는 디자인 중심적 개념이 훌륭한 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은 한 장씩 천천히 음미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개념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가 아닌 어떻게 들릴지부터 고려한다. 우리가 그 이야기 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각 부분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브랜딩 에서 아이덴티티까지 디자인 과정에 속한 모든 요소를 Bigtime Designs What a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common and differently when you proceed these designs

CROBAR MIAMI

in different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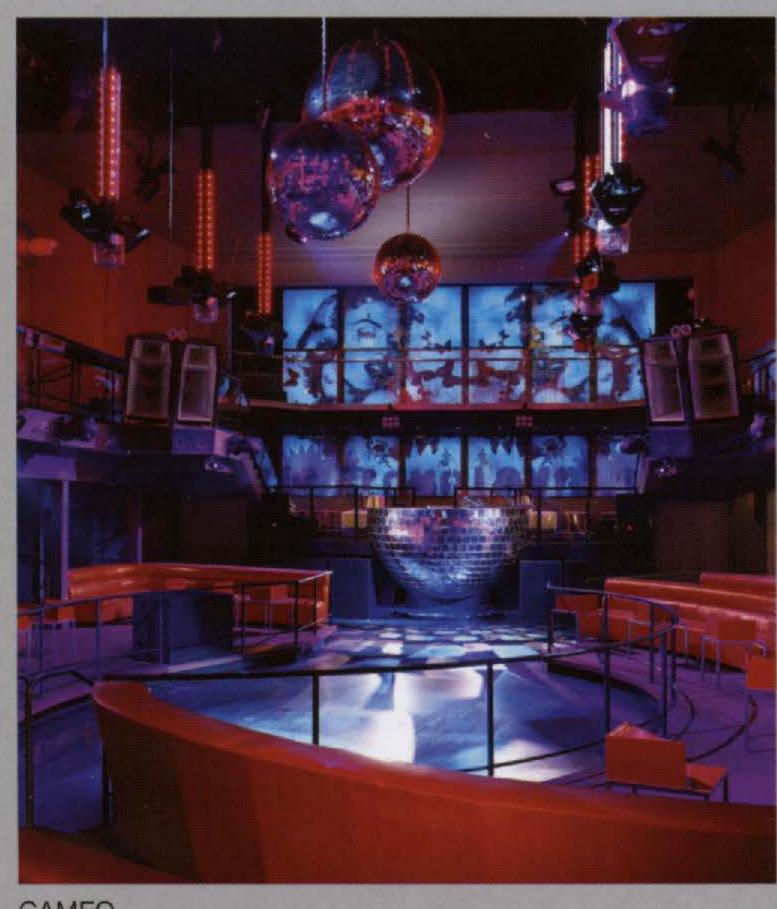
Our process is the same whether a cruise ship or a boutique hotel. The consideration for us is to determine the ethos or heartbeat of the brand, both where they are currently and where they want to go. When creating a new brand, we have a specific process that allows the client to help us create a vision for them. We work with them on core values and brand mission which helps us create the vernacular with which the design is developed.

What do you think the basic skills and qualities that an interior designer should have?

Curiosity. A quest for learning. Aside from the obvious skills which are learned in school or on the job training, an interior designer should want to create thing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or if so, be able to bring light and inspiration to new ways to tell an old familiar story.

Your projects look vintage, modern and unique in its style. What is so special about Bigtime Design Studios in terms of its design?

We are masterful at combining what was, what is and what will be. People respond to the past. We often find iconic cues from different era's that serve as the foundation to a subtle familiarity that opens the door to introduce what is to become or what has yet to happen. Trends are not intentionally created. They are organic in nature and to stylize and create unique and daunting concepts are easier with a subtle nod to the past.



CAMEO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과정을 관통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제어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진행할 때 공통으로 추구하는 점과 각각 다르게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작업 과정은 유람선이든 부티크 호텔이든 상관없이 동 일하다. 우리의 관심사는 브랜드가 현재 그리고 앞으 로 취하고자 하는 정신이나 정수를 규명해내는 것이 다.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할 때 의뢰인이 우리에게 그 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 별한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핵심 가치와 브랜드 목표를 연구함으로써 디자인 개발의 토대를 만든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소양과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호기심과 배우려는 의지이다. 학교나 직업 훈련소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기술에 더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마음을 가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오래되고 익숙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어 야 한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또 그 스타일에서 독특함이 묻어난다. 빅 타임 디자인 스튜디오에만 있는 특별함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합하는 데 능숙하다. 사람들은 과거에 반응하기에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서 상징적인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될 것이나 아 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창을 열고 왠지 모



CROBAR NYC

Was there any project that was particularly memorable or difficult among your projec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m? Please give an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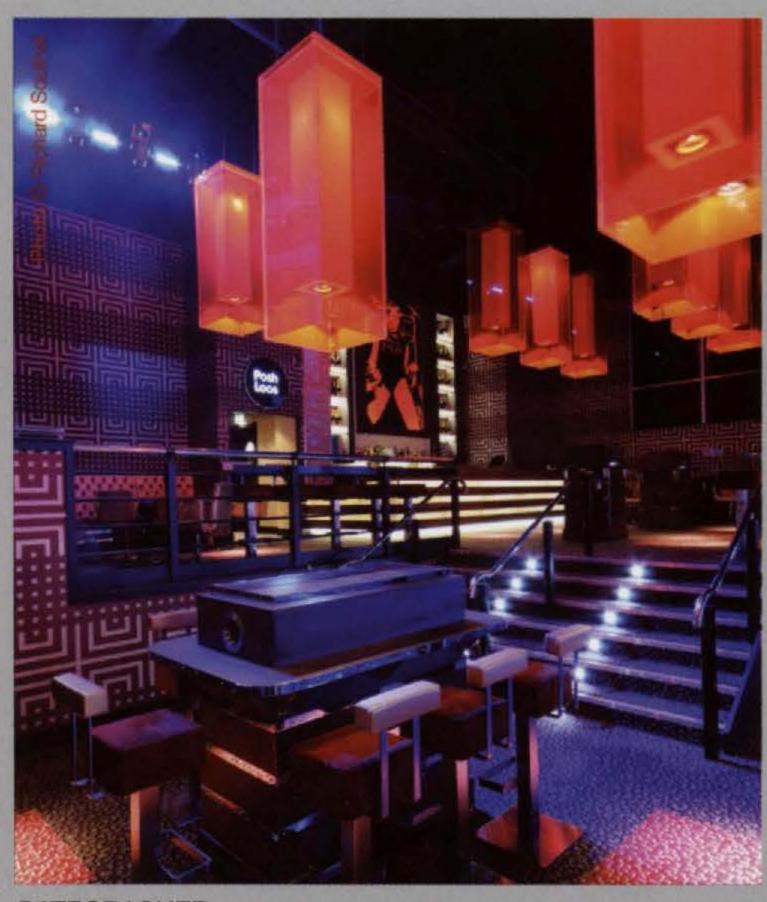
Working on a cruise ship. A cruise ship is a microcosm of a mini city that happens to be on the water. A study in sociology of design. So many different people will ultimately experience your design. Thousands of people a night will participate in the experience you created. That is a lot of pressure and as cruise ships represent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and entertainment our experience working for Carnival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difficult projects we have worked on.

Do you have any hobbies or everyday activities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design?

My hobby is work. I am an amature builder and constinatly am working on projects that are hands on...my hands. I learned to weld so I could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steel. I learned carpentry so I c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detailing and joinery. I find inspiration in the work of fabrication.

Please tell us about your works in progress.

We are involved in designing a high speed train project in Florida.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USA and we are working on both the cafe car along with 9,144m of state of the art wellness/fitness concept.



GATECRASHER

를 친숙한 배경을 구성한다. 유행 역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상 유기적 존재이며, 과거에 대한 은은한 향수를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개념을 더욱 쉽게 기획 및 개발한다.

스튜디오가 설립된 이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특별 히 기억에 남거나 까다로웠던 작업이 있는가? 에피소 드가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유람선 작업이 생각난다. 유람선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도시의 축소판이기에 디자인 사회학적 연구가 진행됐다. 다수의 사람이 우리 디자인을 체험할 것이고, 그많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창조한 경험에 동참하게 된다. 이는 엄청난 부담이다. 유람선이 최첨단기술과 오락을 대표한다면 카니발은 우리가 여태 진행했던 것 중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작업이다.

평소 아이디어에 도움 될만한 취미나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내 취미는 일이다. 나는 아마추어 건설 기술자이므로 내 손에 쥐어진 프로젝트를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나 는 철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접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세부 구조와 목공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목수일도 익혔다. 이처럼 나는 제조 과정에서 영감을 얻는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달라.

우리는 플로리다의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 디자인에 참 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맡은 부분은 약 9,144m에 이르는 최첨단건강 및 피트니스 개념의 카페 차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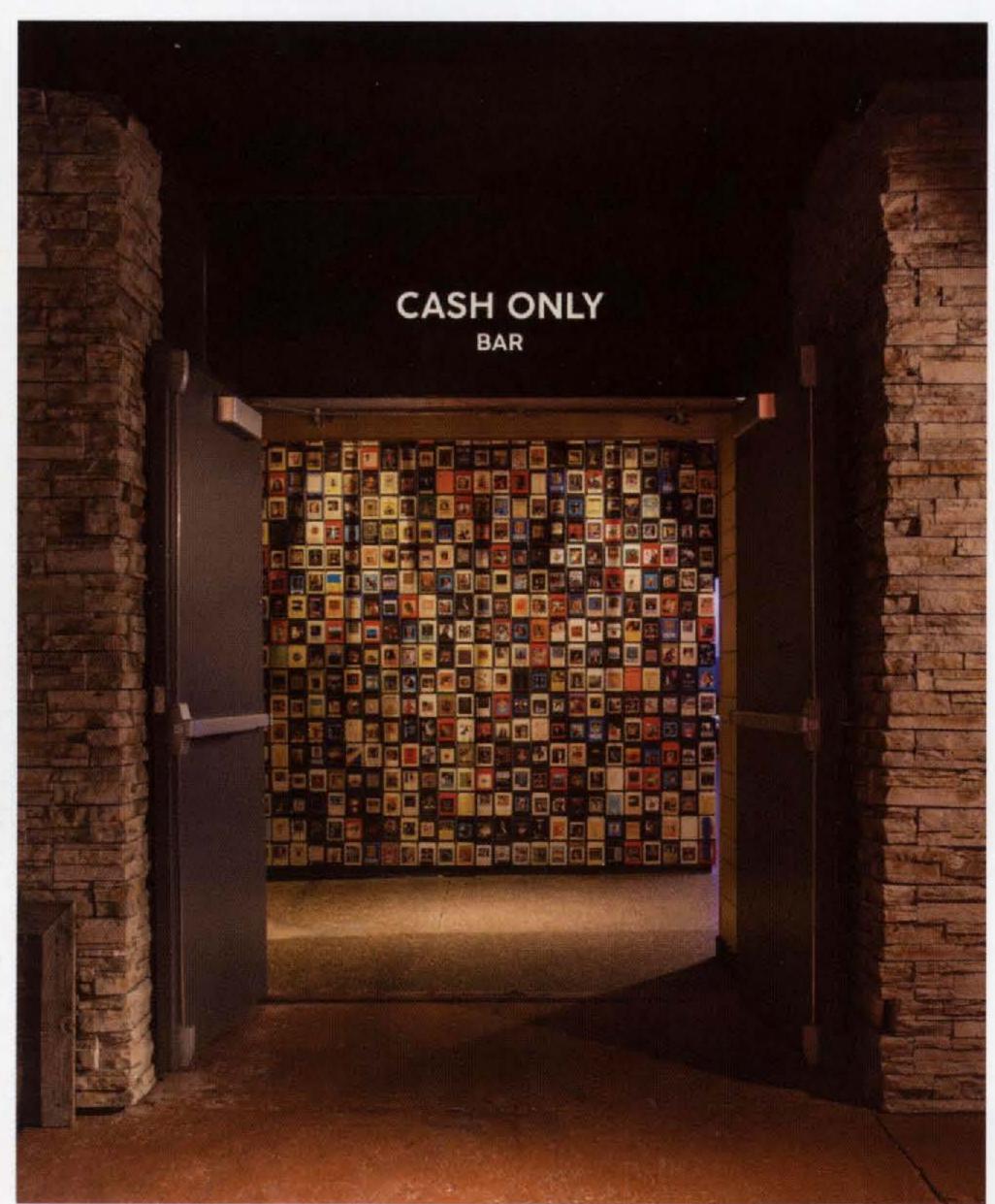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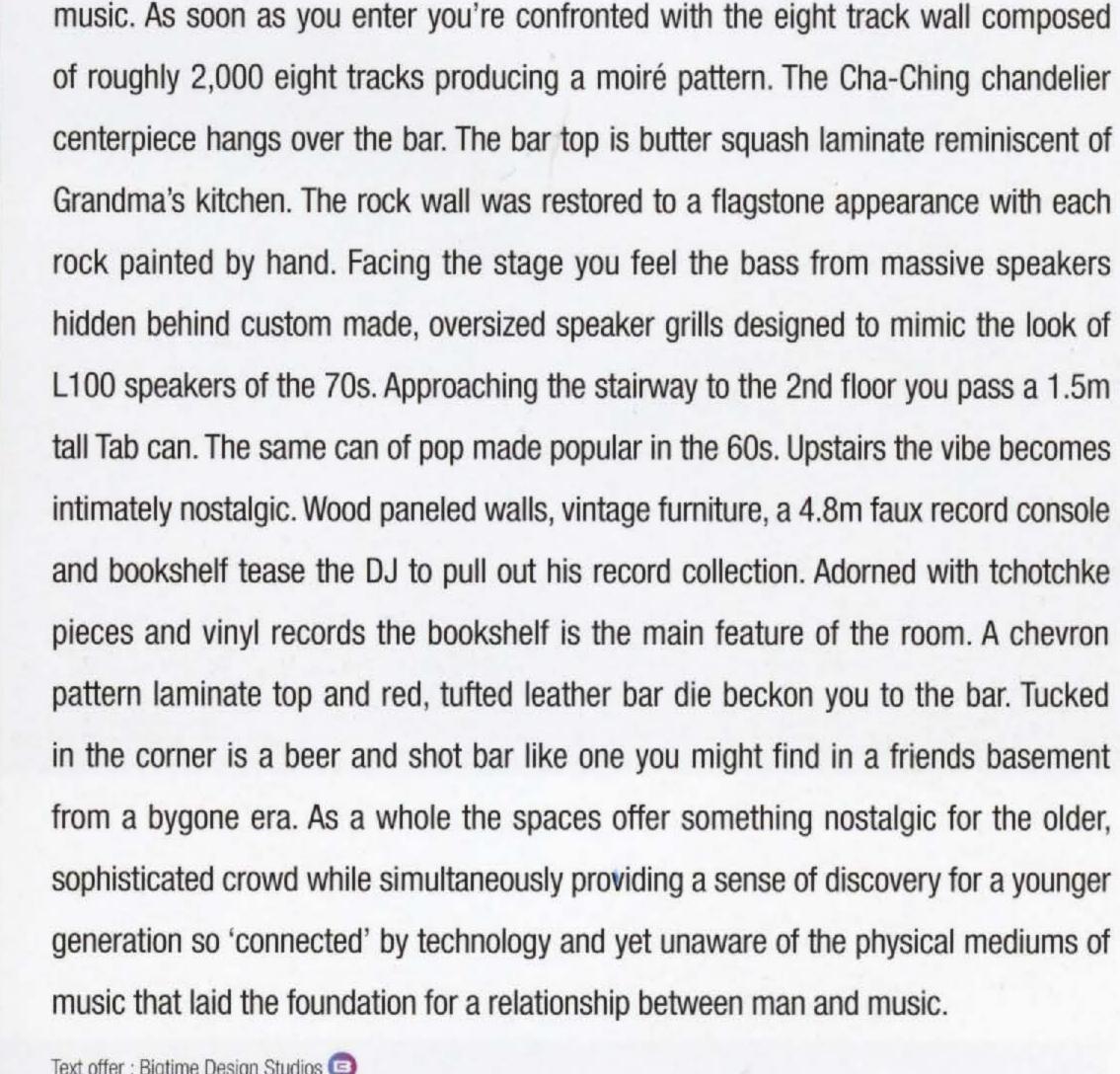
Bigtime Design Studios SUEY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Location:** Fort Lauderdale, Florida, USA Built area: 789m² Completion: December 2016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The space is a homage to music as a mediu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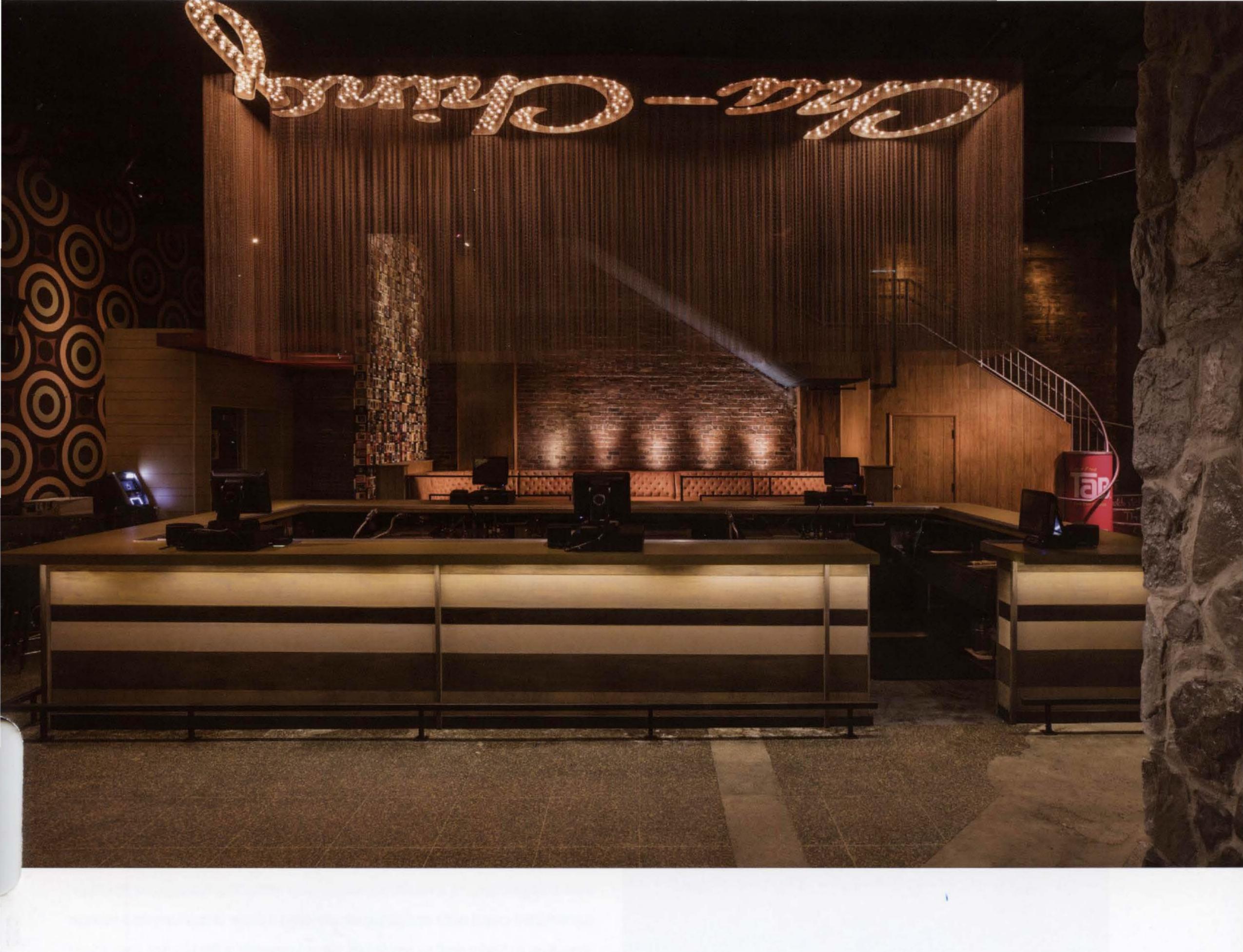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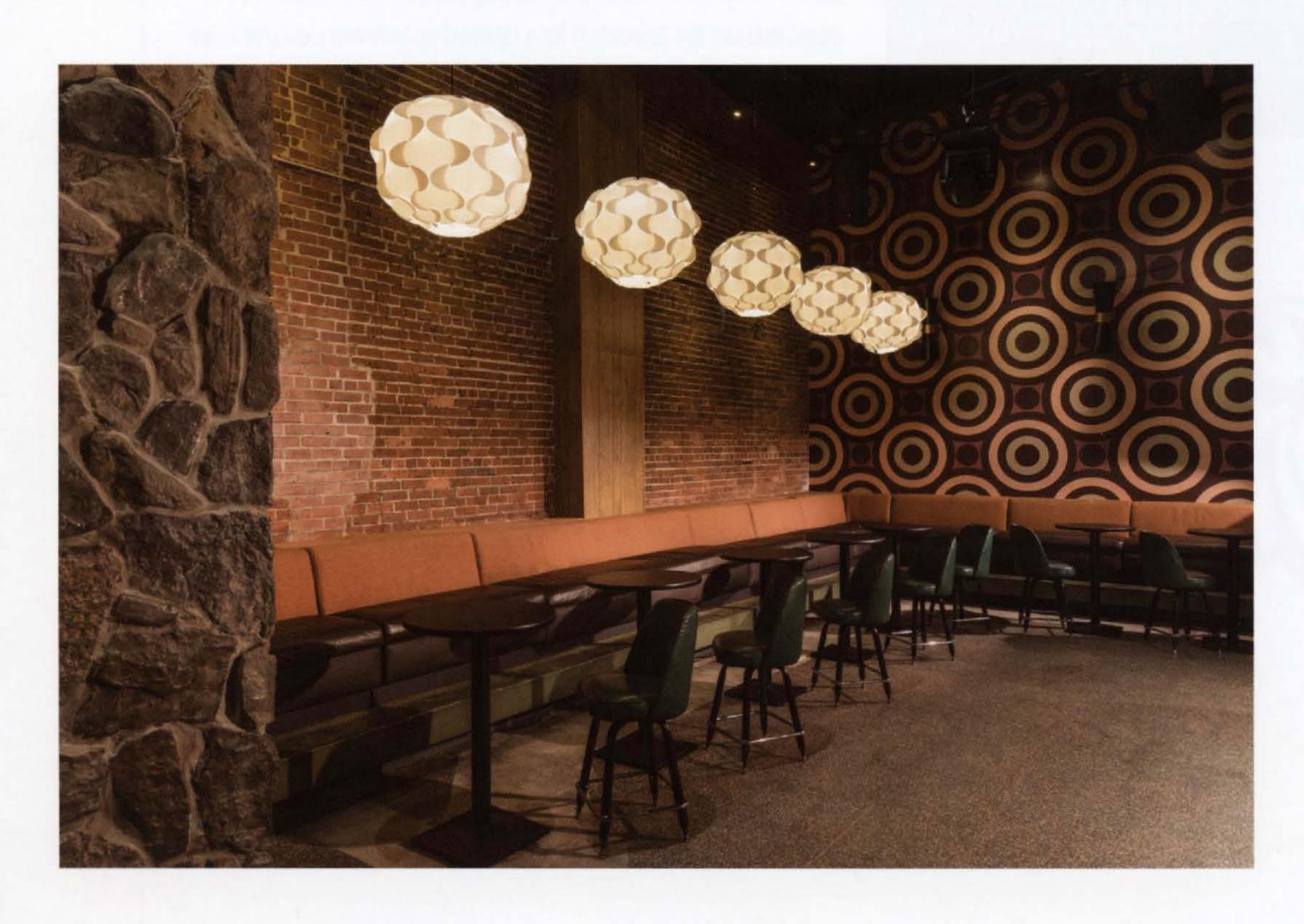


Text offer : Bigtime Design Stud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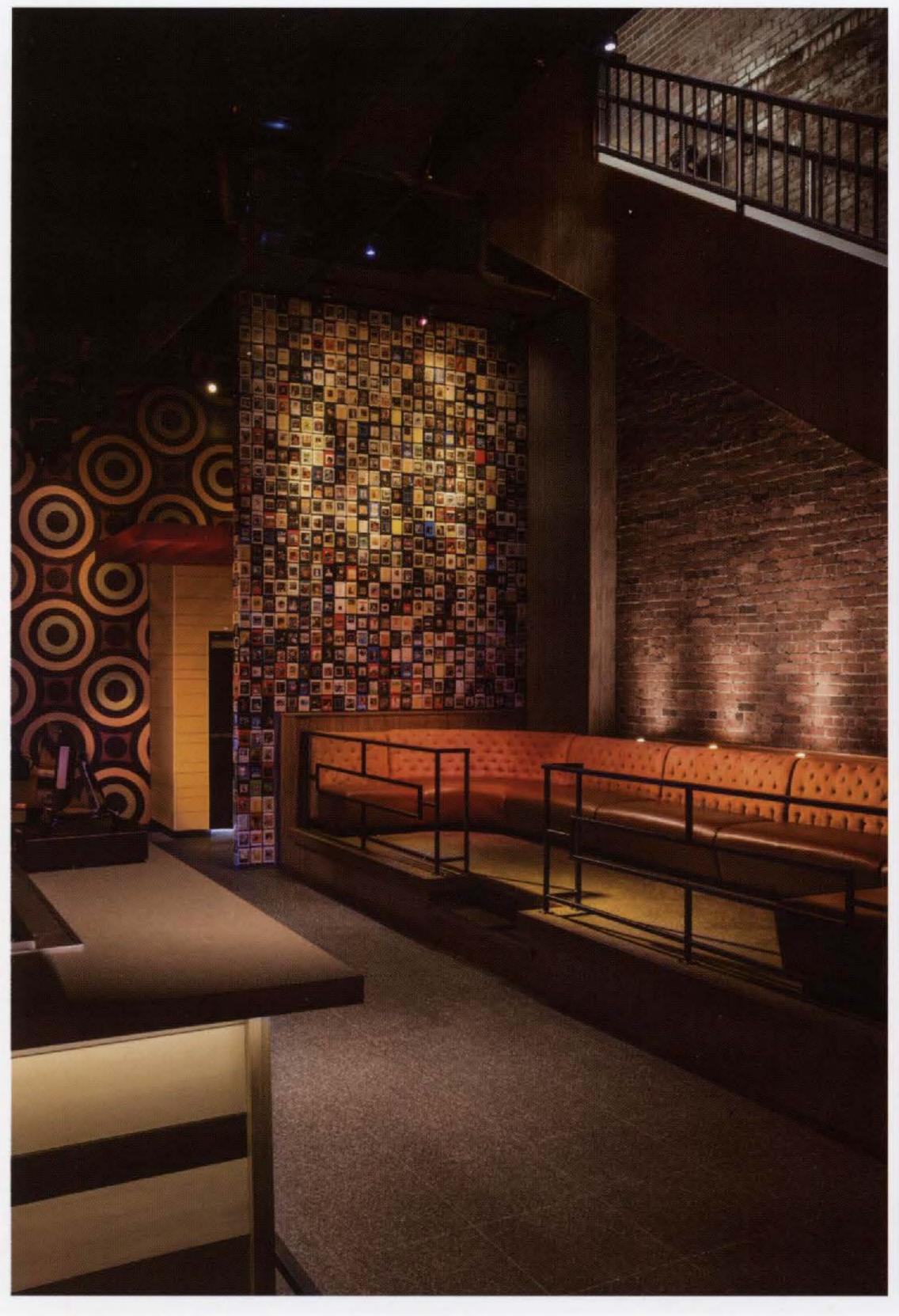


이곳은 매개로서의 음악 그리고 인간과 음악의 관계에 바치는 헌사다. 공간에 들어서면 대략 2,000개 8트랙 녹음테이프로 구성되어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녹음테이프 벽과 직면하게 된다. 바에는 차-칭 샹들리에가 중앙에 매달려 있고, 바 상부의 땅콩 호박색 합판은 할머니 부엌을 연상시킨다. 암벽은 돌 하나하나 손으로 채색되어 판석 모양이 드러나도록 복원됐다. 무대를 마주하면 70년대 L100 스피커를 본떠 만들어져 초대형 스피커 덮개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스피커의 중저음을 느낄 수 있다. 2층과 연결된 계단으로 가려면 1.5m 높이의 탭 깡통을 지나야 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생긴 제품이 60년대에 유행했었다. 위층에서는 깊은 향수에 빠지게 된다. 목재 패널 벽, 고가구, 4.8m 길이의 가짜 레코드 콘솔, 책장 등은 레코드 컬렉션을 꺼내 보도록 DJ를 유혹하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레코드판으로 장식된 책장이 공간의 핵심 요소이다. V자 무늬가 새겨진 합판 상부와 술이 달린 붉은색 가죽 마감을 통해 바로 발걸음을 이끄는데, 공간 구석에는 지난 시절 친구 집 지하에서 볼 수 있었던 맥주, 위스키 바가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이곳은 나이 들고 교양 있는 이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첨단 기술로 늘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과 음악의 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음악이라는 물리적 매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글제공: 박타임 디자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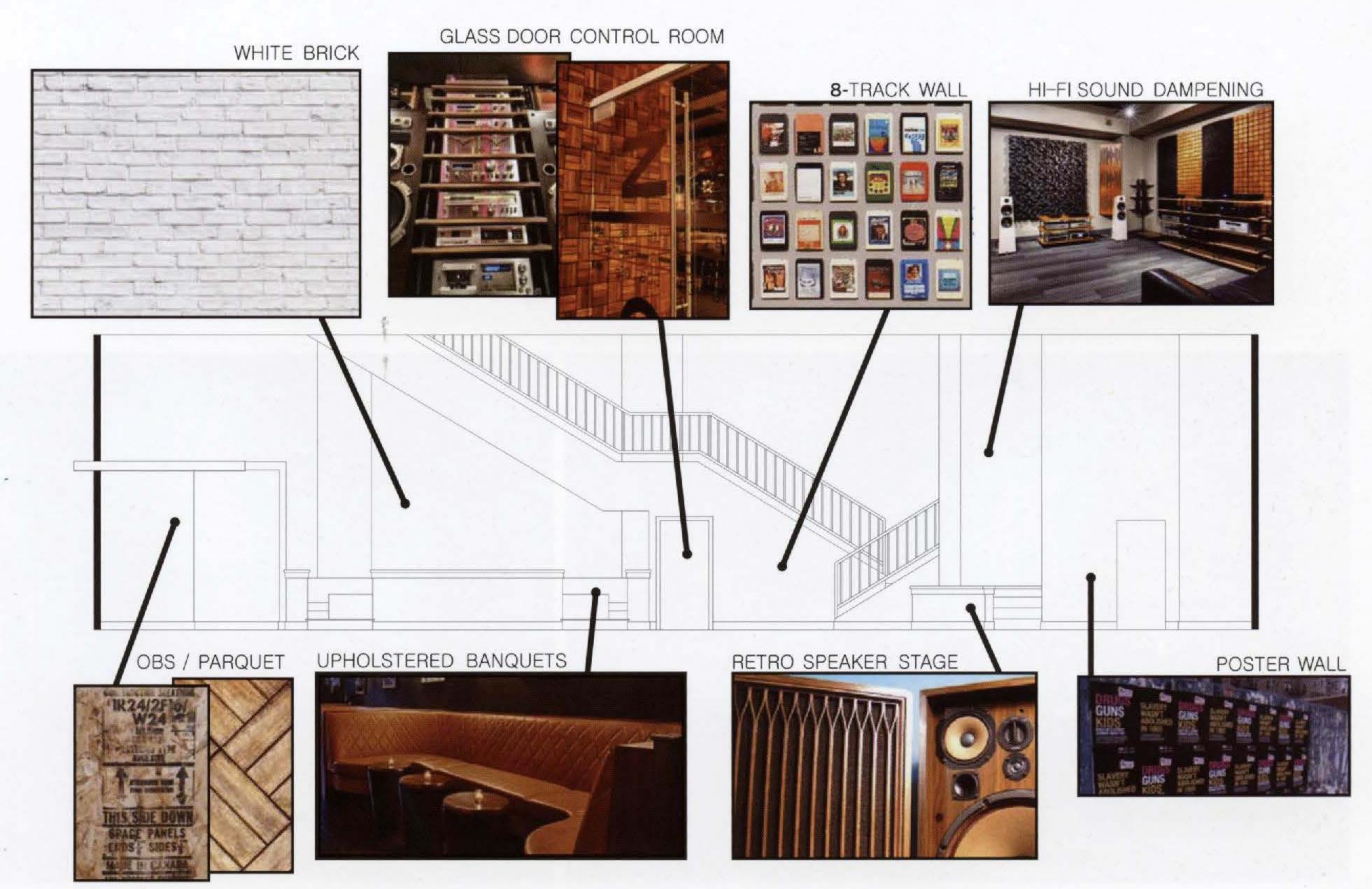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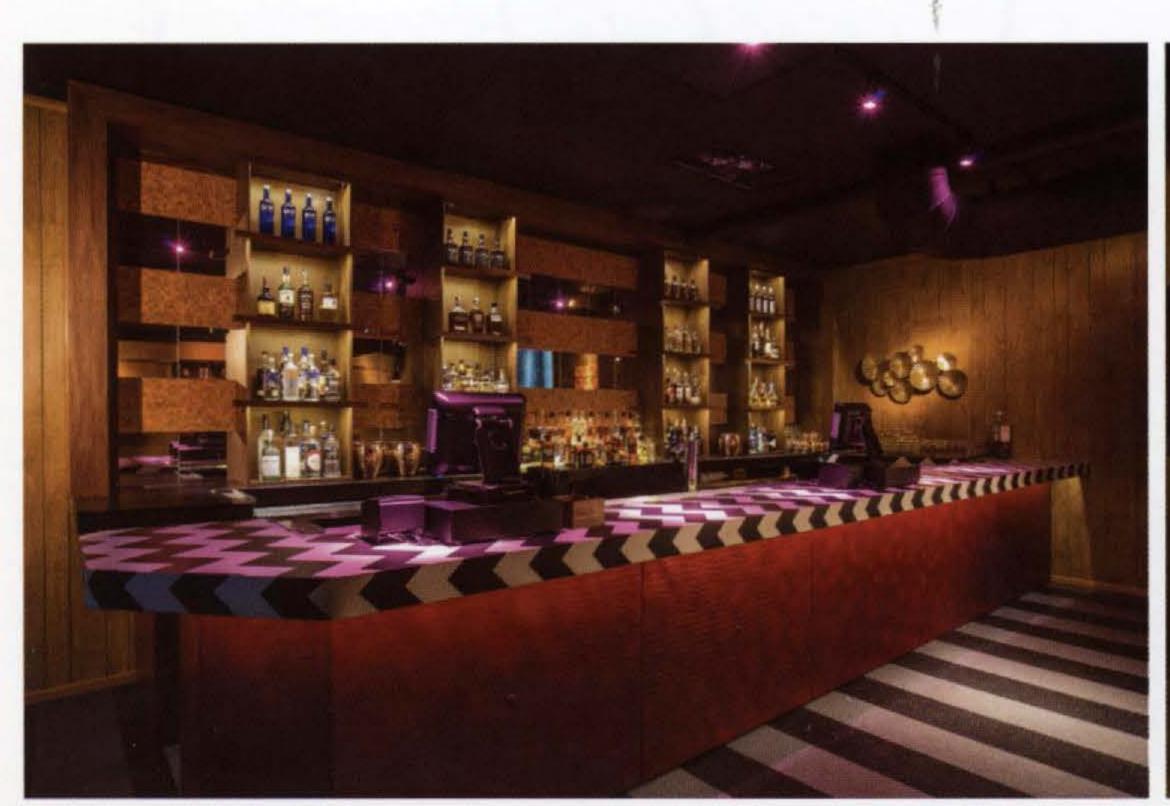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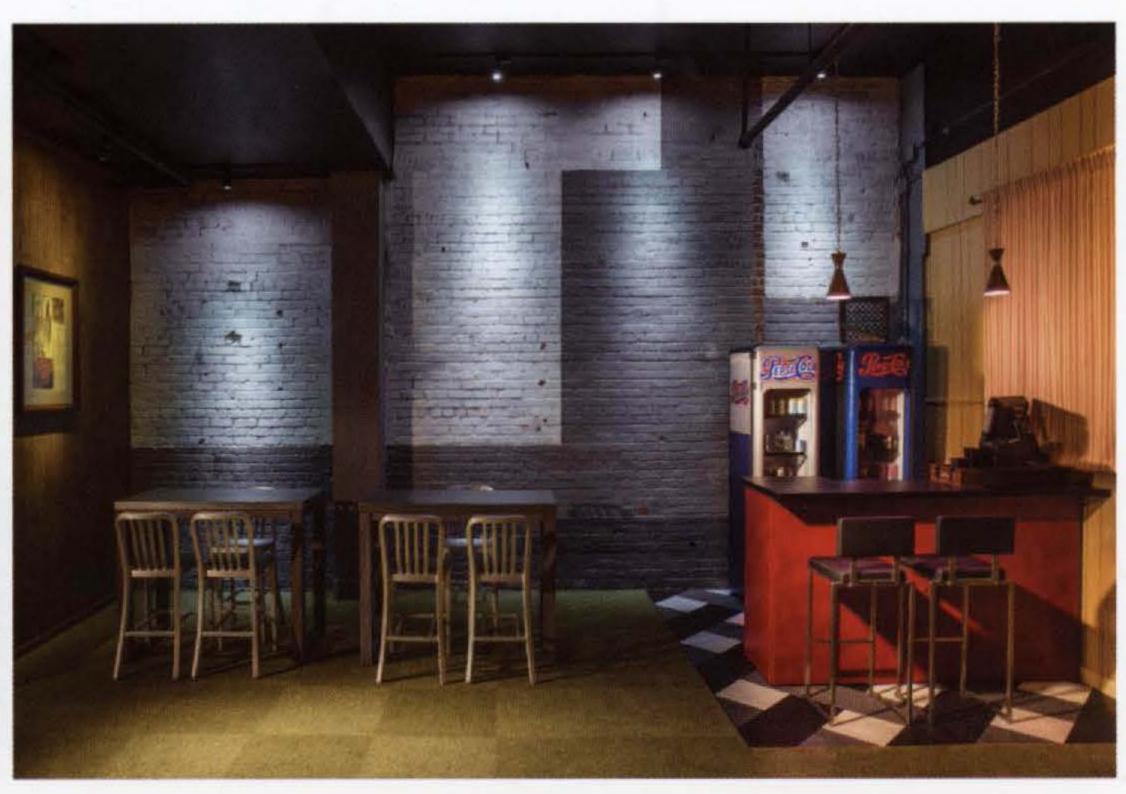












1 MAIN ENT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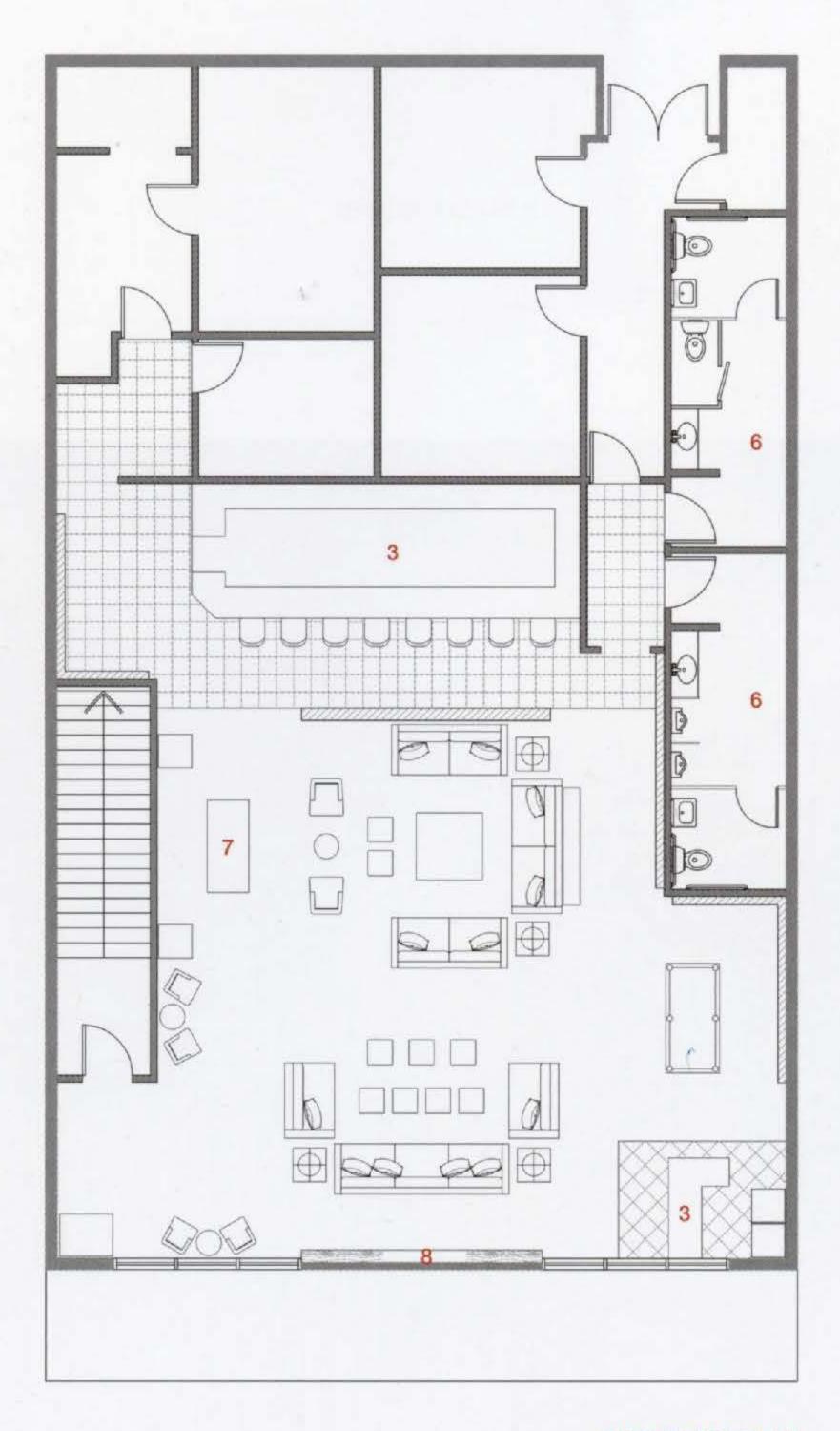
2 VESTIBULE SCREEN WALL

3 BAR 4 VIP 5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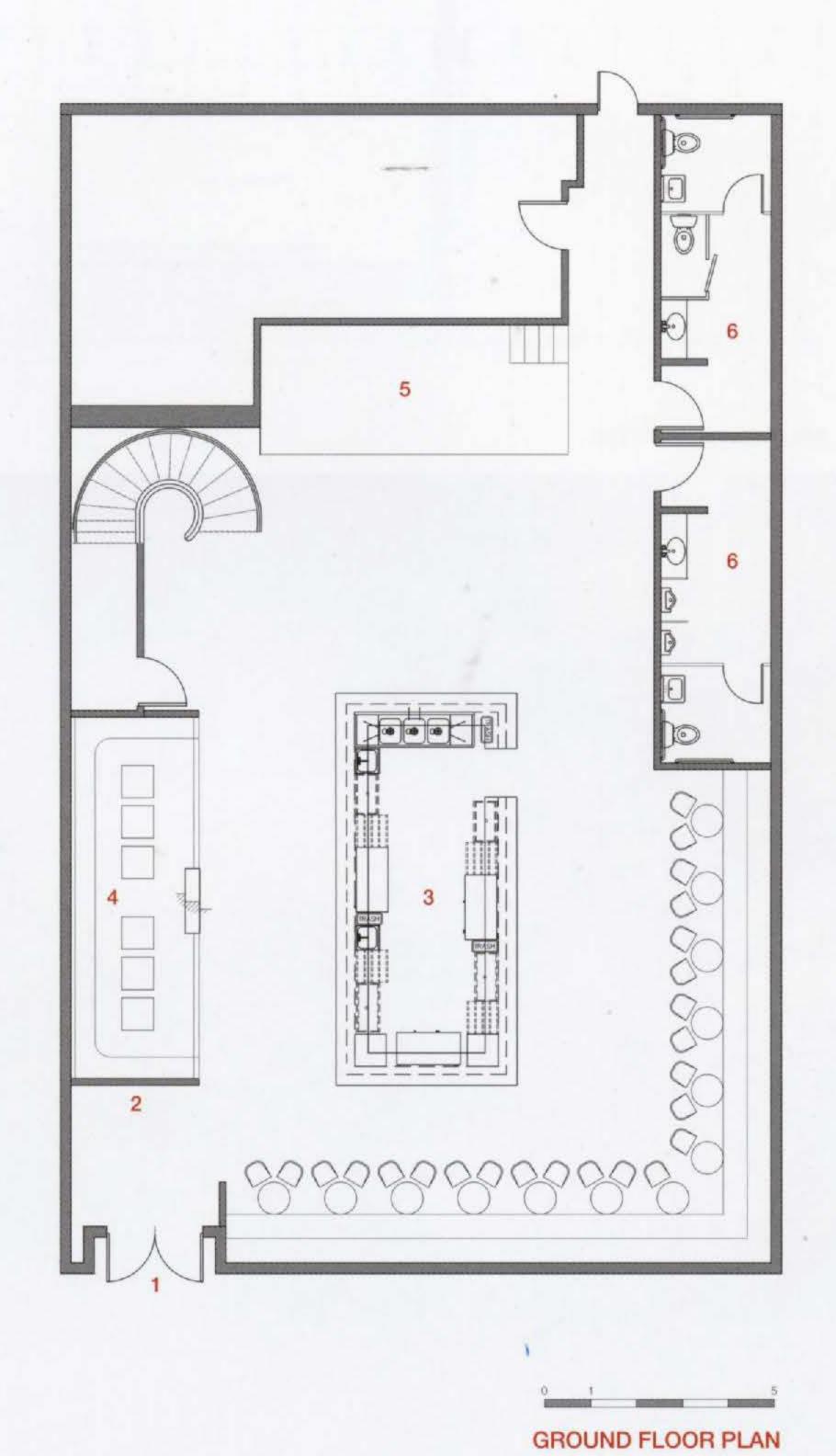
6 REST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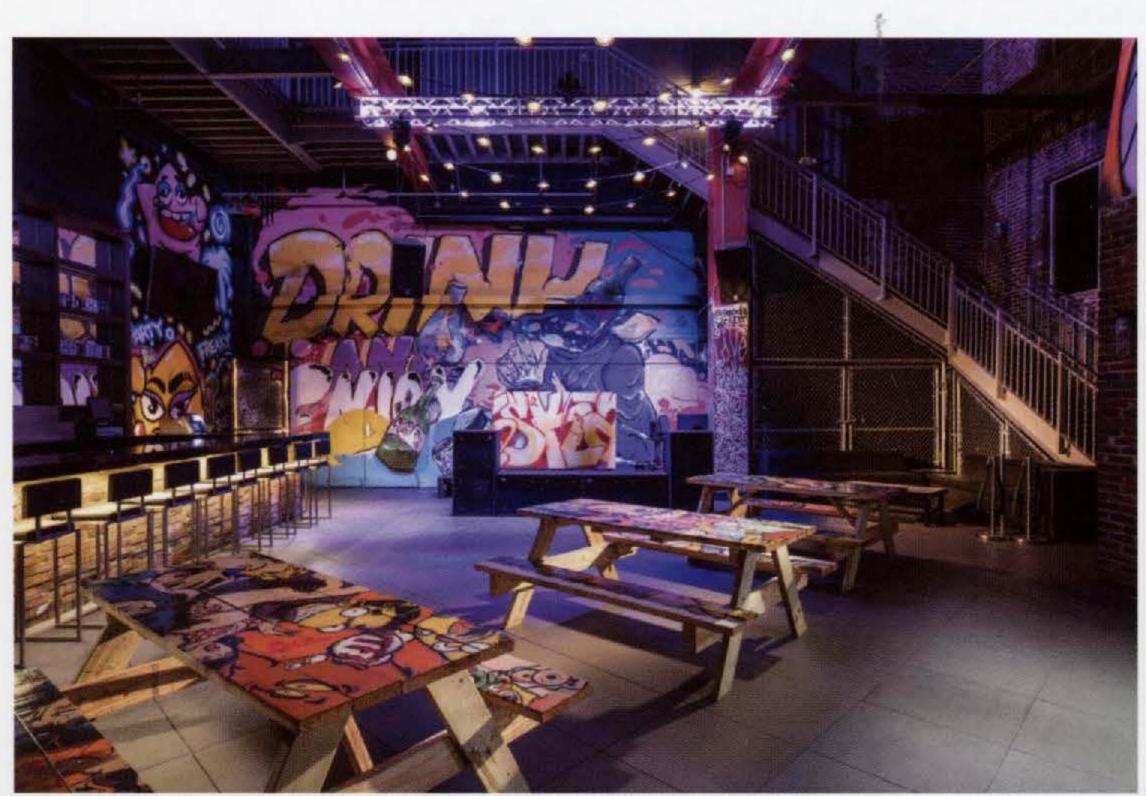
7 DJ BO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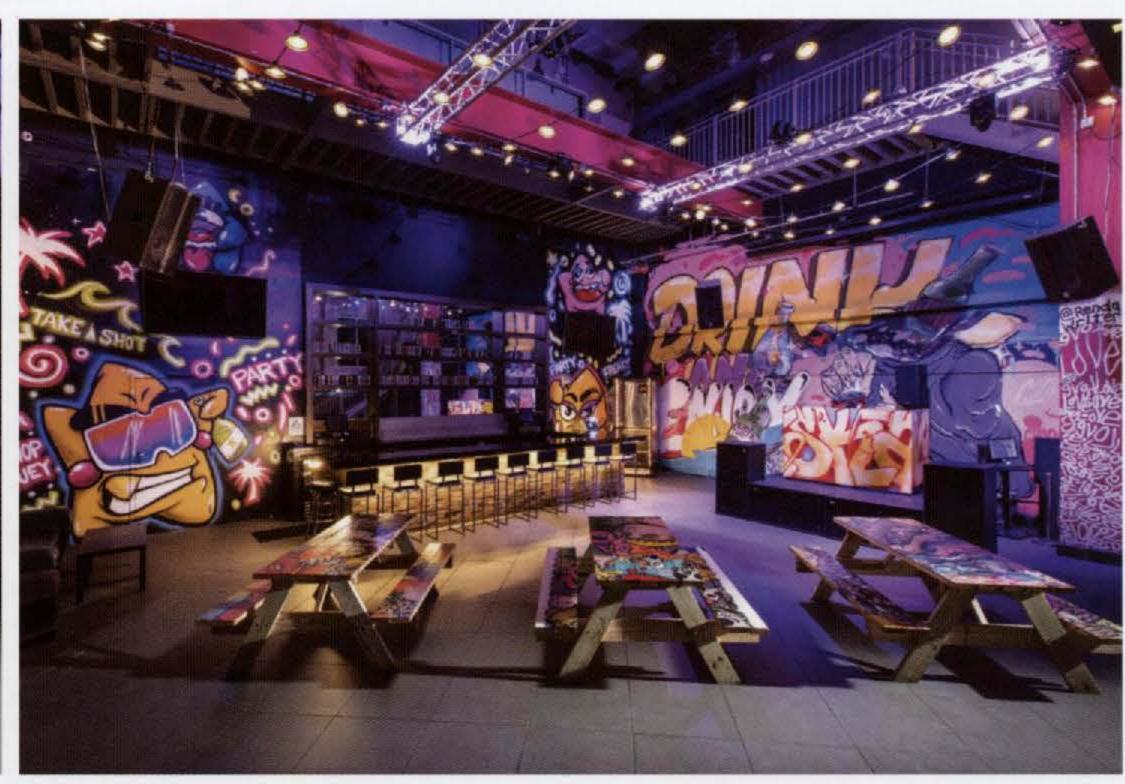
8 BUILT-IN BOOK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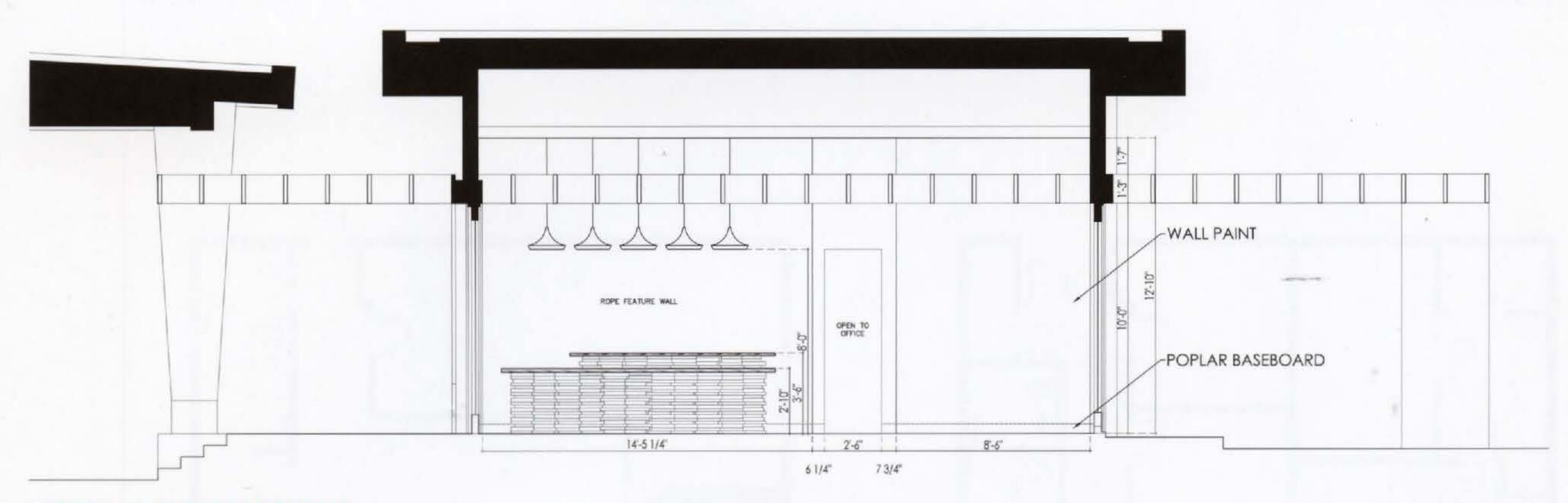












LATITUDINAL SECTION_RECEPTION



Bigtime Design Studios SORT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Client: Carlyle Group Location: Islamorada, Florida, USA Built area: 186m² Completion: February 2016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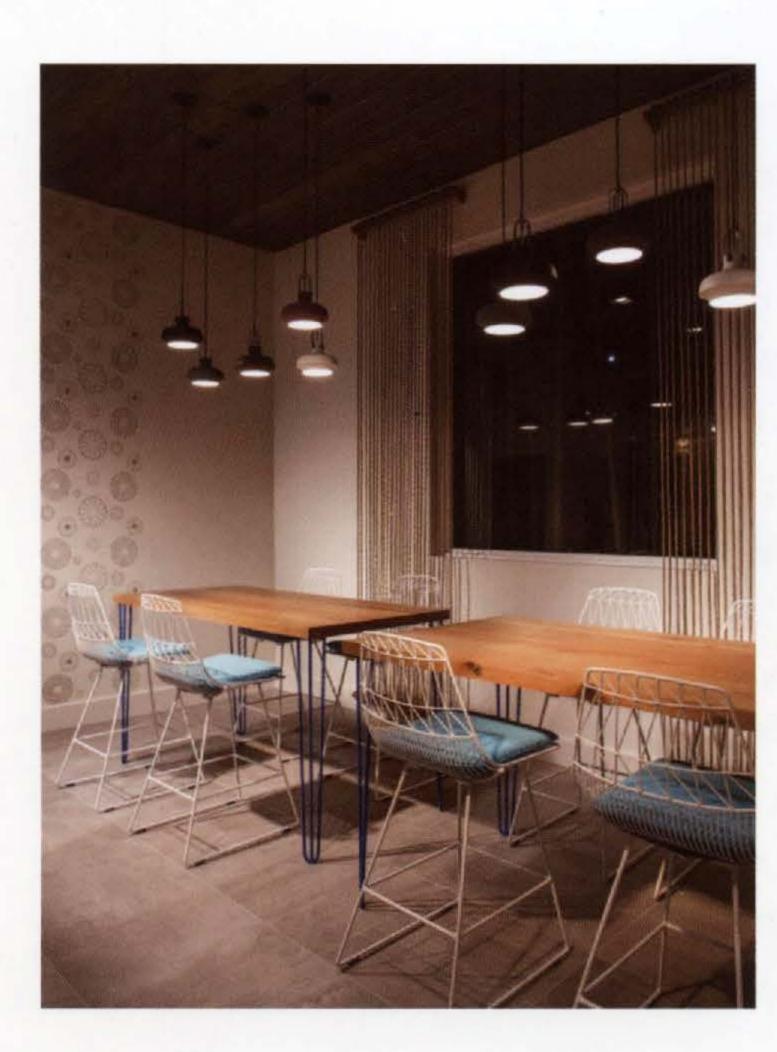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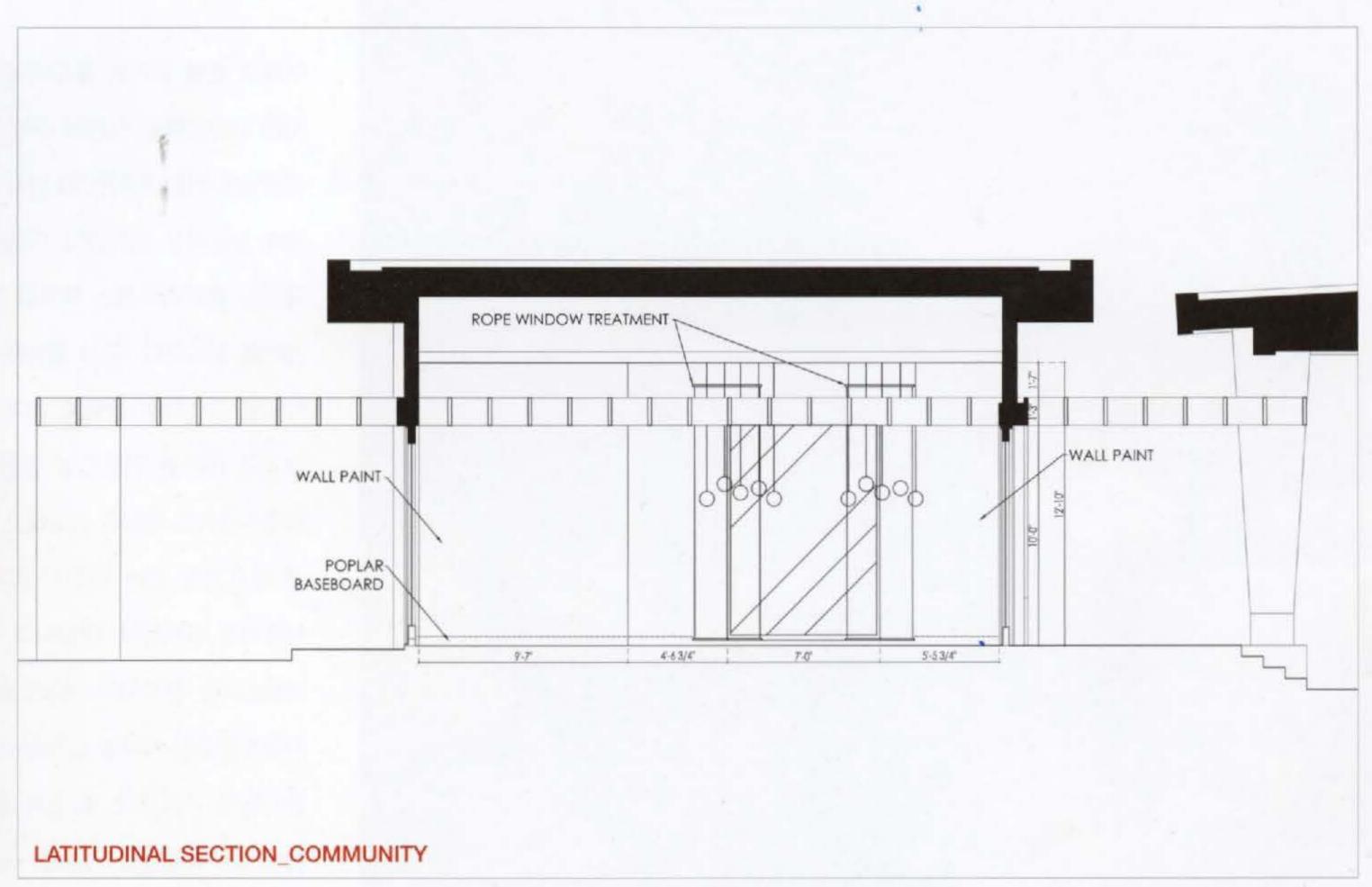
The lobby of this boutique hotel is on the sight of a former gas station on your way to the Florida Keys. The building, though new has a modicum of Googie architecture meant to evoke a road trip escape as you pull up. Located directly on the Pacific, this fishing resort was meant to preserve its historic roots from the 60s through today and beyond. The ceiling is repurposed driftwood that was salvaged from the sights previous tenant. The light fixtures are representative of the crab and lobster pots that generations of men fed their families as Florida Keys pioneers. The center core of the space is the herringbone and sand cement tile surrounded by oversize concrete natural tiles. The intention was to bring the water and sand as a ripple directly into the lobby as you enter. The focal point is the reception desk. It is comprised of over 700 books all which were hand-picked for both size and content. The Keys all have a story to tell and this piece was created to help pay honor to those stories. From Hemingway to how to bait a Tarpon the spline out books were placed discreetly to create a moiré pattern which when complete took on a life of its own. The historic heyday of this property was the 60s and 70s. The FF and E took on an up styled spirit and color to feel vaguely familiar and yet newly minted. The graphic pattern is a custom designed print that was a loose homage to Peter Max and his 'flower' stickers that embodied a stylistic and free spirited period of history. The window treatments are really fish box twine used to secure the nets as they are off loaded with the days c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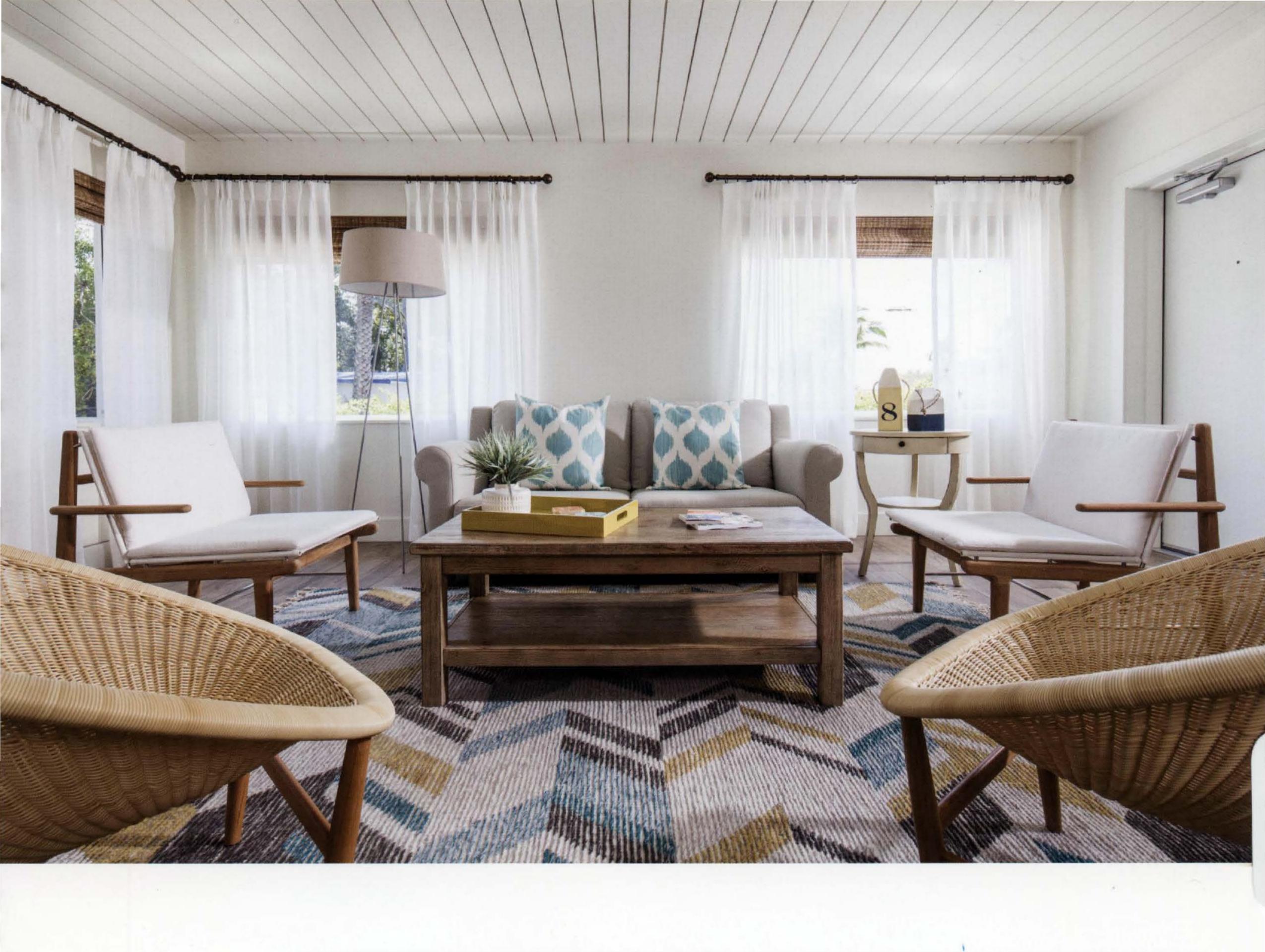
Text offer : Bigtime Design Studios 😑

부티크 호텔 로비는 플로리다키스 제도로 가는 길목의 구 주유소 시설 부지에 자리한다. 새로지은 건물임에도 약간의 구기 건축양식이 가미되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행 분위기가 느껴진다. 태평양에 직접 위치한 이 낚시 리조트의 목표는 6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뿌리를 앞으로계속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지의 이전 시설에서 수거한 유목이 천장에 재활용됐으며, 조명장치는 플로리다키스 제도의 개척자가 오랜 세월 가족을 먹이는 데 사용했던 게와 바닷가재용 냄비를 상징한다. 공간 중앙은 거대한 콘크리트 천연 타일로 둘러싼 헤링본 무늬와 모래 시멘트타일로 마감되어 로비로 들어갈 때 마치 물결처럼 물과 모래를 느낄 수 있다. 시선의 중심에는 크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엄선한 700여 권의 책으로 구성된 리셉션 데스크가 위치한다. 이는플로리다키스 제도가 간직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헌사를 바치기 위해 만들어졌고, 헤밍웨이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길게 나열된 책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신중하게 배치됐다. 대상지의 역사적 전성기는 60년대와 70년대였다. 이로 인해 가구 및 설비는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색상으로 어딘지 모르게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그래픽 패턴으로 세련되고 자유분방했던 시대를 상징하는 피터 맥스와 그의 '꽃' 스티커에 가벼운 경의를 표하기 위한 맞춤형인쇄물이 구성됐다. 또 잡은 물고기를 내릴 때 그물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 실제 어망끈이 창호 장식으로 활용됐다. 글제공: 박타일 디자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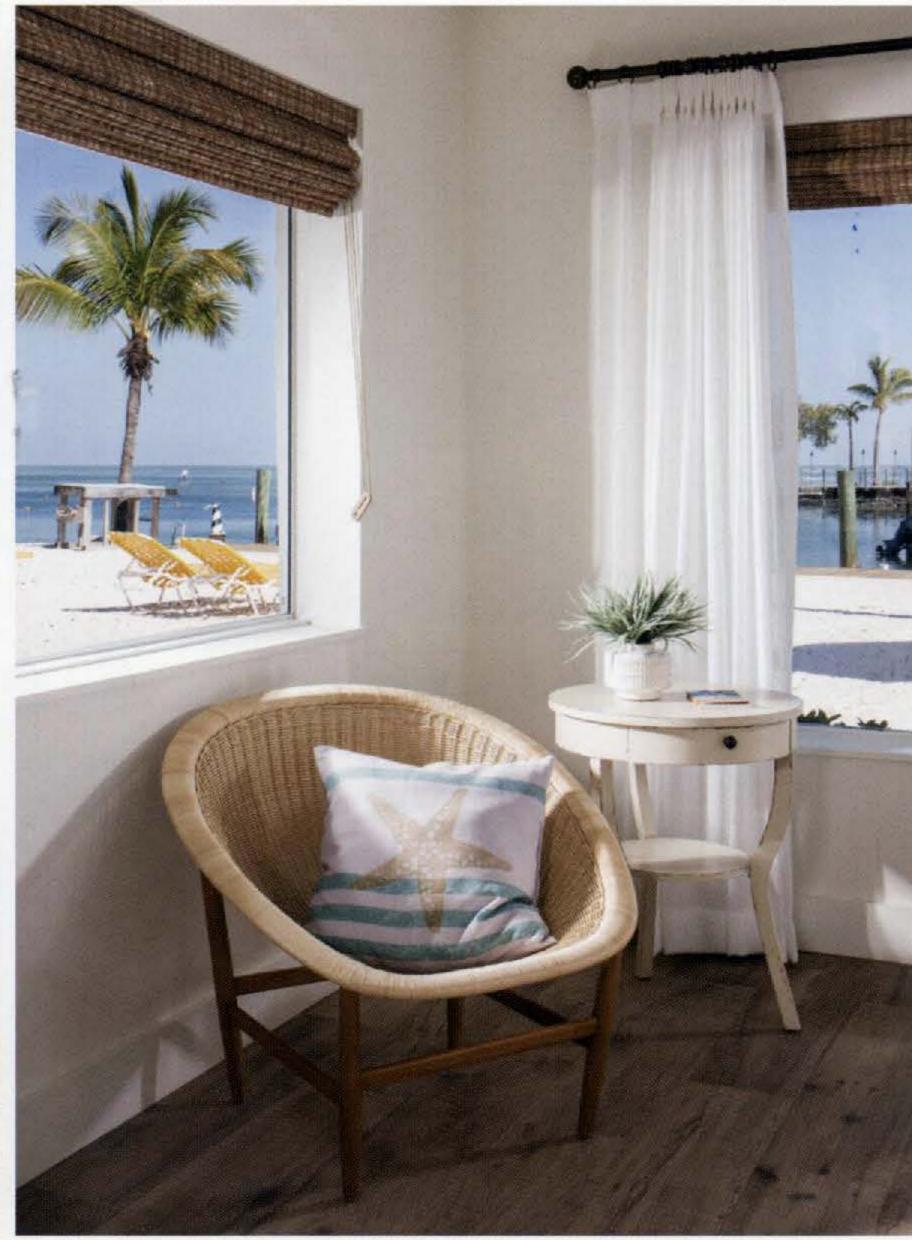












1 PORTE COCHERE

2 LOBBY

3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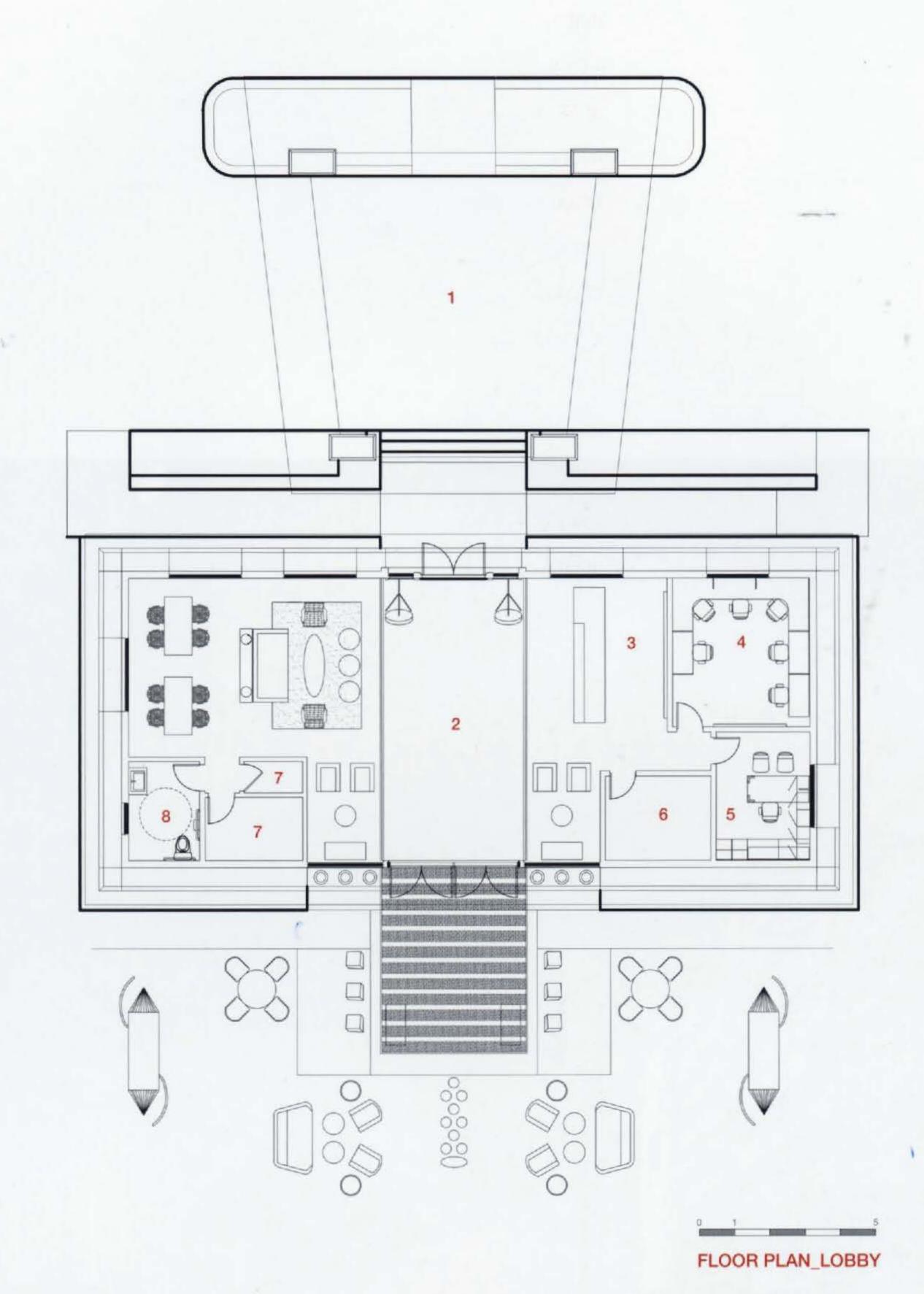
4 CALL CENTER

5 OFFICE

6 LUGGAGE ROOM

7 SERVICE ROOM

8 RESTROOM







Bigtime Design Studios OUND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Client: Carlyle Group Location: Islamorada, Florida, USA Built area: 492m² Completion: August 2016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The playful and whimsical design concept of <Ciao Hound> was to take the traditional Italian restaurant and turn it on its head with a style and atmosphere unique to the Florida Keys. The location's historic setting at the iconic beachside resort Postcard Inn provided the foundation for a laid back, dog friendly, inside/outside casual yet spirited dining and drinking concept. The Italian fare inspired to create word play with the name and the graphics and interior design incorporated into what the designers designed to be a modern day classic. Where you would expect to find walls adorned with photos of 'Nona and family' instead you find oversize dog art printed on plywood, an enormous chalkboard wall with menu and hand drawn doodles, shelving with a cornucopia of glass jars filled with anything from olives to Skittles candy. On a relatively low budget the creative direction included Italian tomato can labels from the 1960s printed directly on plywood and hung as a group in fresh poppy colors. The outside area continues this concept by introducing a new approach to outdoor dining by including design elements catering to a rarely thought of guest. Man's best friend wanders through an experience unique to himself. Water and food bowls, dog menus, and a mini-outdoor dog park on the patio complete the moniker, <Ciao H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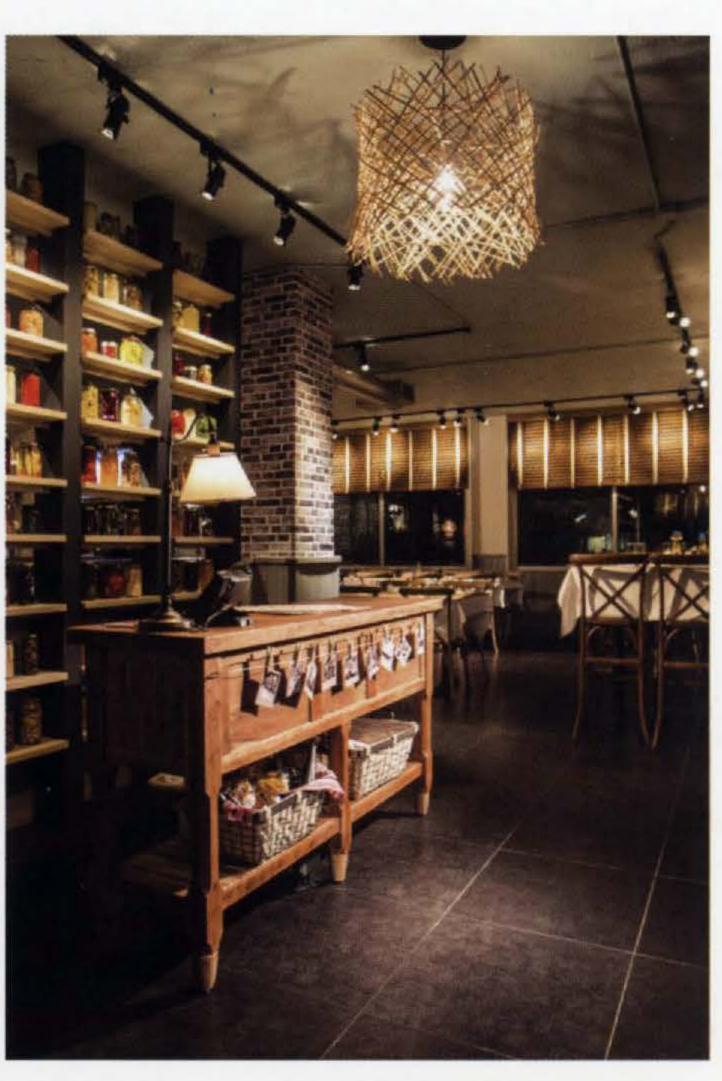
Text offer : Bigtime Design Studios (3)

〈차오 하운드〉의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디자인 개념은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플로리다키스 제도 특유의 양식과 분위기로 뒤바꿔 놓는 것이었다. 상징적인 해변 리조트 포스트카드 인에 자리한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은 여유롭고 반려견 친화적이며, 안팎으로 편안하면서도 활기념치는 식당 겸 주점 개념의 바탕이 된다. 디자이너는 이탈리아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이용한 언어유희, 그래픽, 현대적 고전미를 드러내는 실내 디자인을 완성했다. '노나와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합판에 인쇄된 커다란 강아지 그림, 음식 메뉴와 손으로 쓴 낙서로 채워진 거대한 칠판, 올리브에서 사탕까지 온갖 것을 담은 유리병으로 가득한 선반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에 따라 합판에 직접 인쇄된 1960년대 이탈리아 토마토 캔 라벨이 싱그러운 양귀비색상의 조합으로 걸려있다. 야외 공간은 손님을 배려한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야외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개념을 계속 이어나간다. 반려견 역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물과 사료 그릇, 반려견용 음식 메뉴, 안뜰에 조성된 소형 야외 공원을 통해 〈차오 하운드〉라는 이름에 맞는 공간이 갖춰졌다.

글 제공 : 빅타임 디자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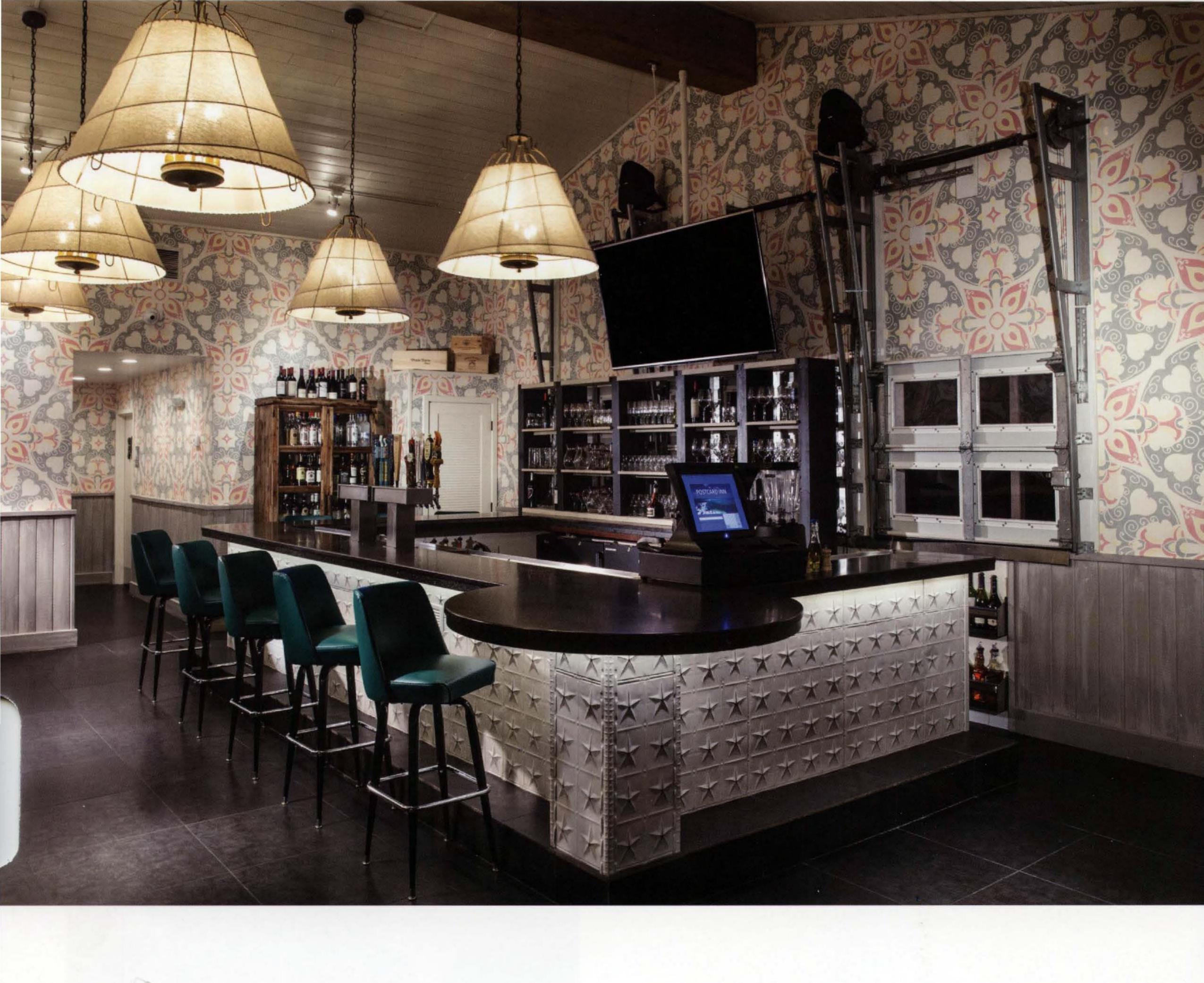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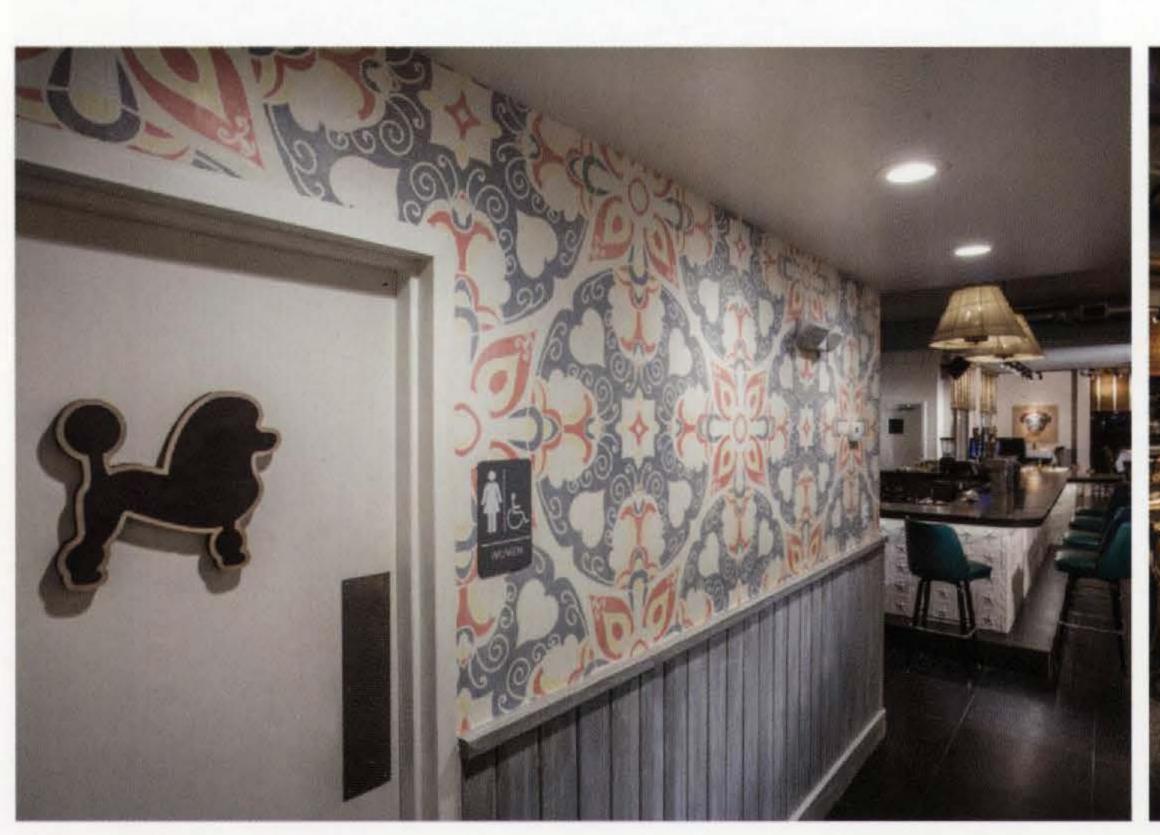


070

B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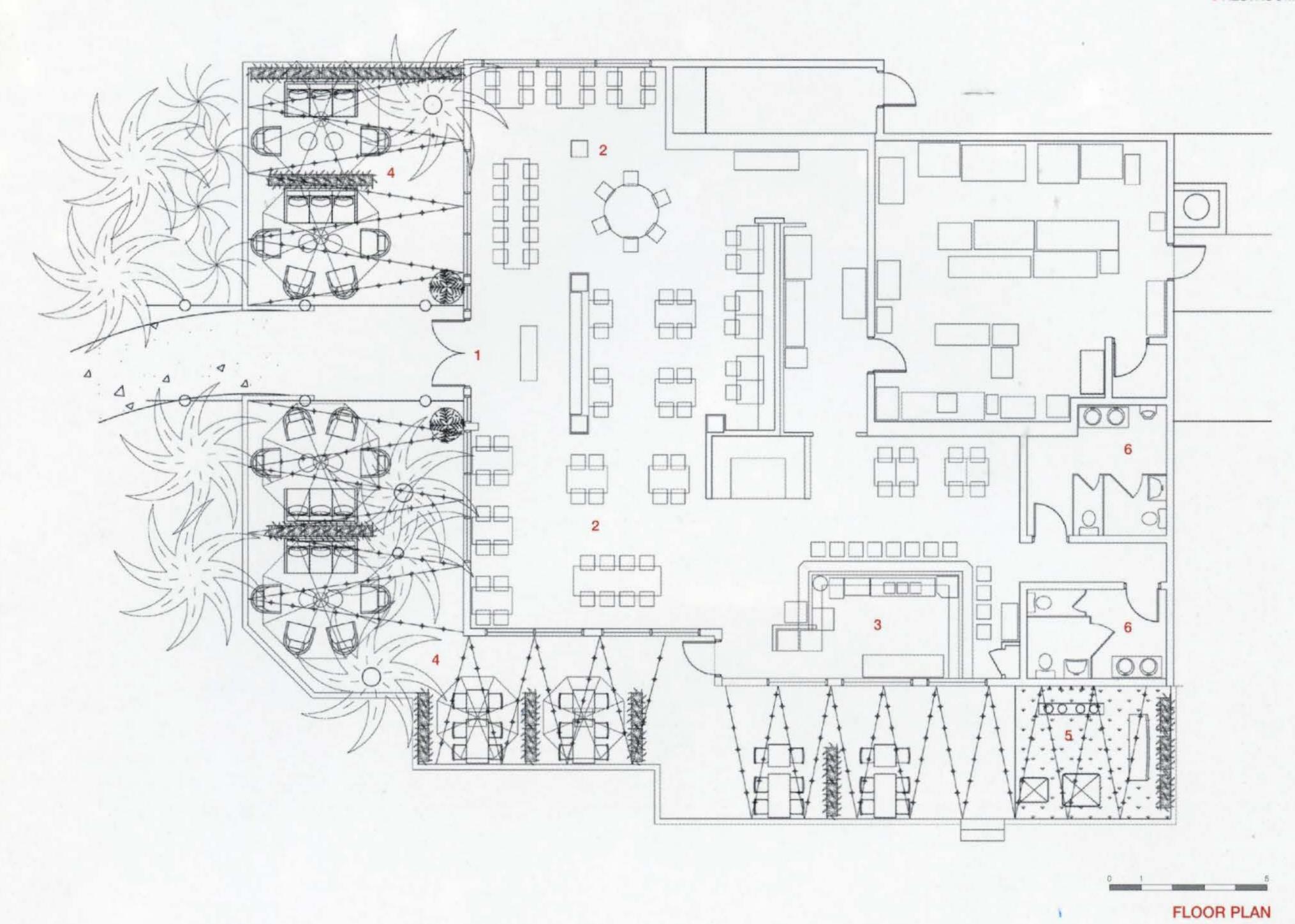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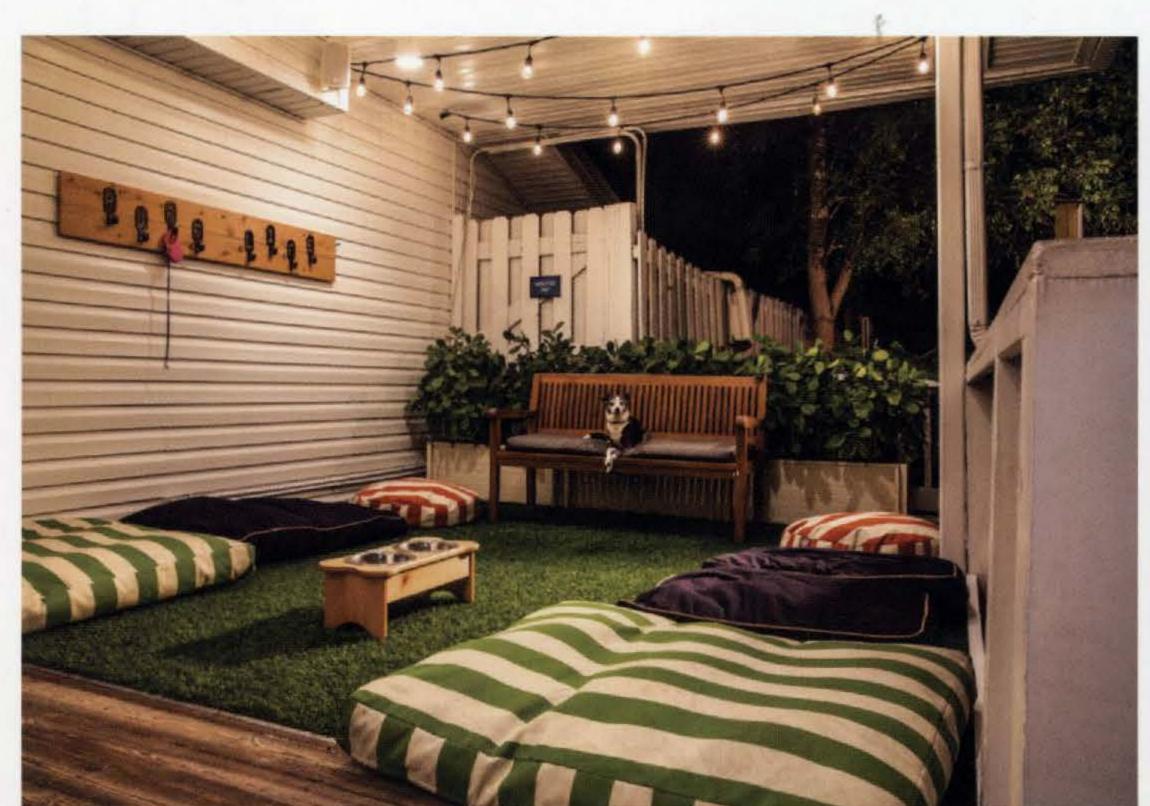






- 1 ENTRANCE
- 2 INDOOR SEATING
- 3 BAR
- 4 OUTDOOR SEATING
- 5 PUPPY LOUNGE
- 6 REST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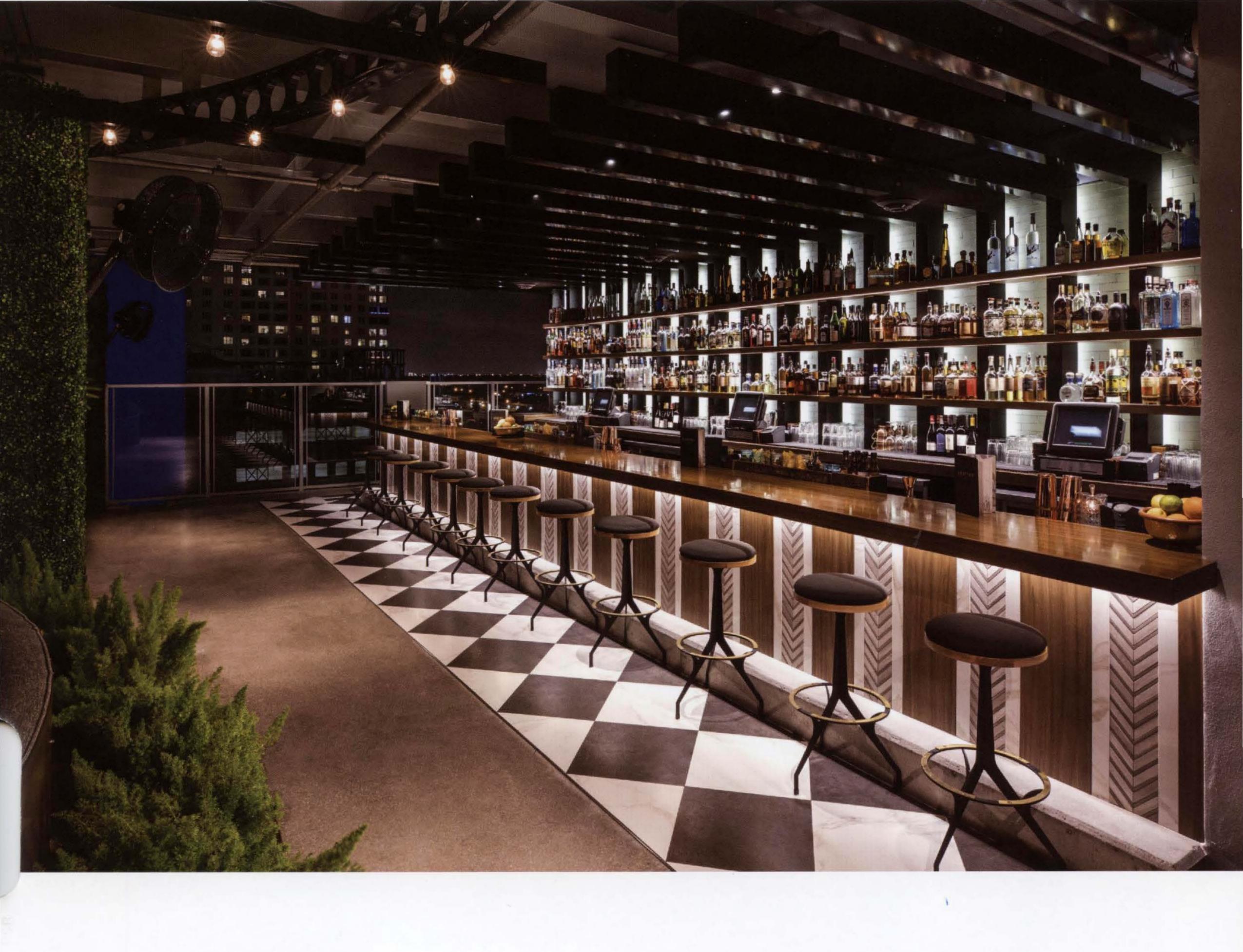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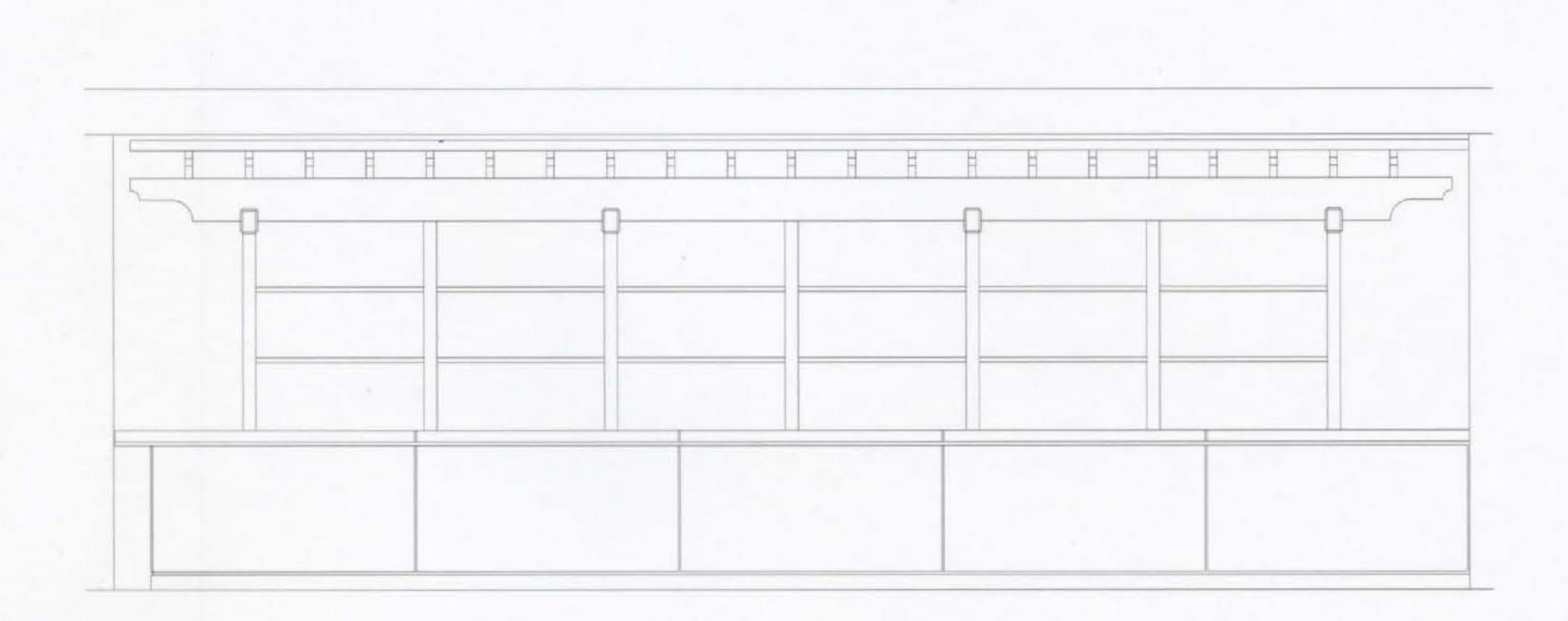
Rivaling rooftop F&B outlets in Los Angeles, New York City, and Miami, this space is the city's first rooftop bar and lounge. As an upscale casual concept it is surrounded by a panoramic city skyline. The 464m² open-air bar and eclectic lounge envelops patrons in a lush garden in the sky with green foliage popping amid a natural and neutral decor. IPE planters surround a blackened Victorian steel trellis from which topiaries and festoons are suspended creating an intimate sense of drama and a layer between the guest and the open air. In the corner 37m² were captured to create a park spirit. The center piece is a 4.5m Clusia tree that completes the central part spirit in this area. Another level was created with a flamed blackened steel floating trellis set at 2.7m to create another in air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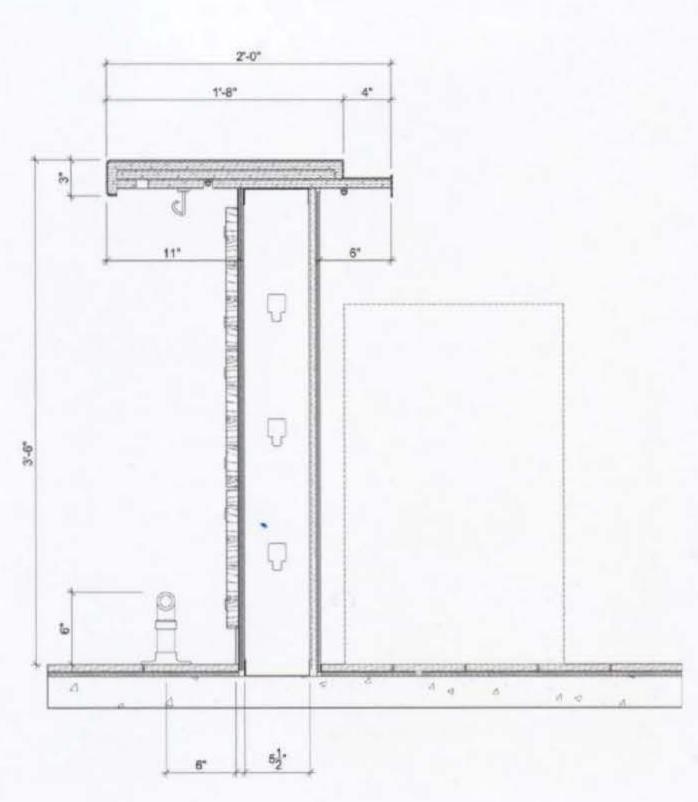
to the otherwise flat rooftop. That along with a 15m long white oak bar top and Moroccan mosaic bar die punctuate the eclectic ethos of this concept. Various species of landscape were used to help highlight zones within the overall space. From Sansevieria to Asparagus fern combined with intentionally faux boxwood hedge helped provide an extremely lush and sophisticated aesthetic. To create a geometrically appealing inner view to the expansive city vista, Lady Palms along with Clusia of various heights were used to create the traffic patterns and mark the paths of travel. The lounge itself blends turf, tile, outdoor rugs and a dramatic community fire table to create a sophisticated big city vibe combined with a laid-back welcoming atm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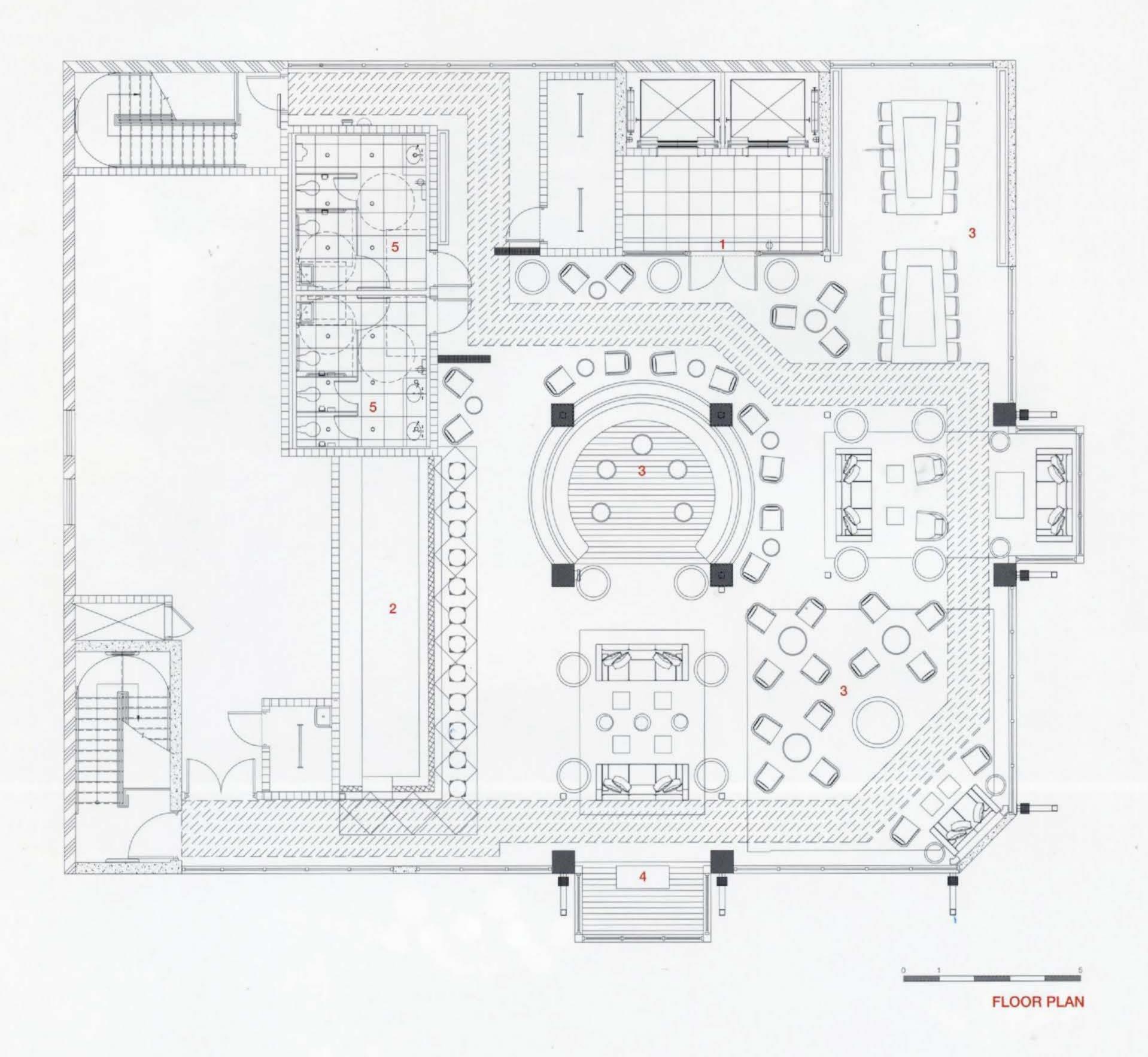
공중에 설치된 탄화강철 격자 구조물은 새로운 차원의 매력을 선사하고, 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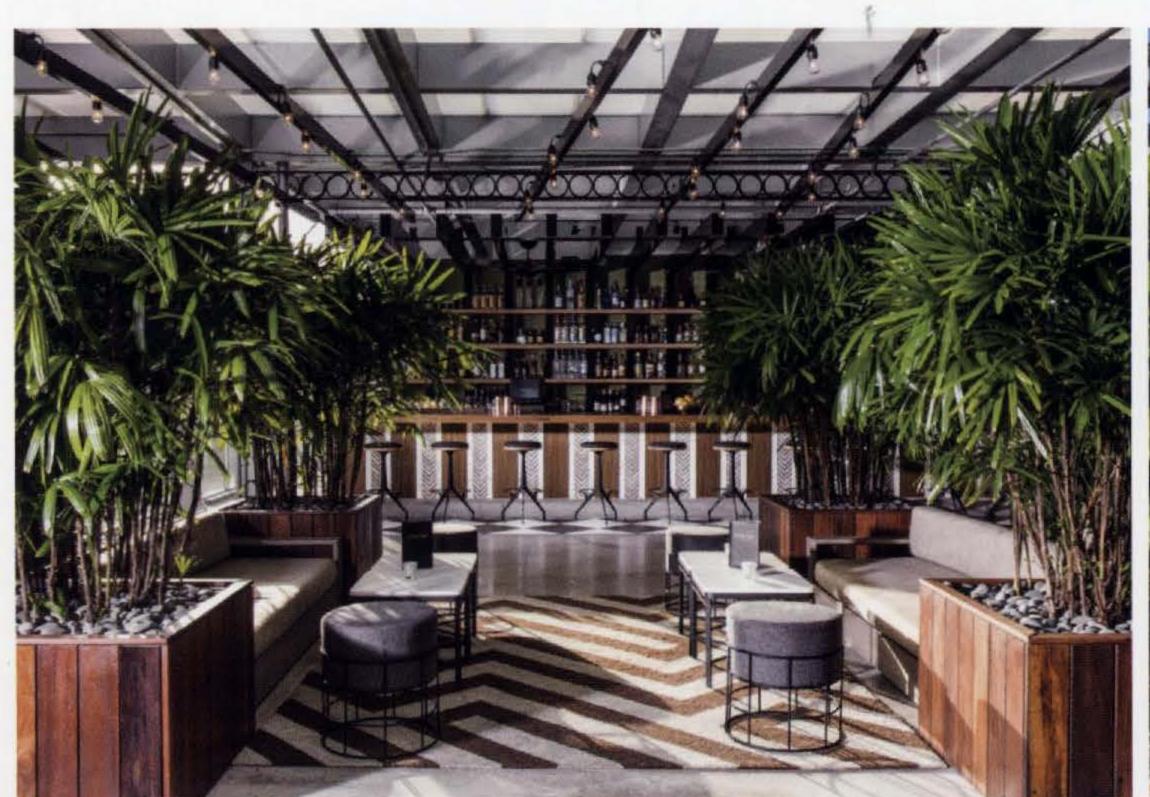






- 1 ENTRANCE
- 2 BAR
- 3 SEATING AREA
- 4 DJ BOOTH
- 5 RESTROOM









Bigtime Design Studios RANT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Client: The Restaurant People Location: Fort Lauderdale, Florida, USA Built area: 929m² Completion: October 2015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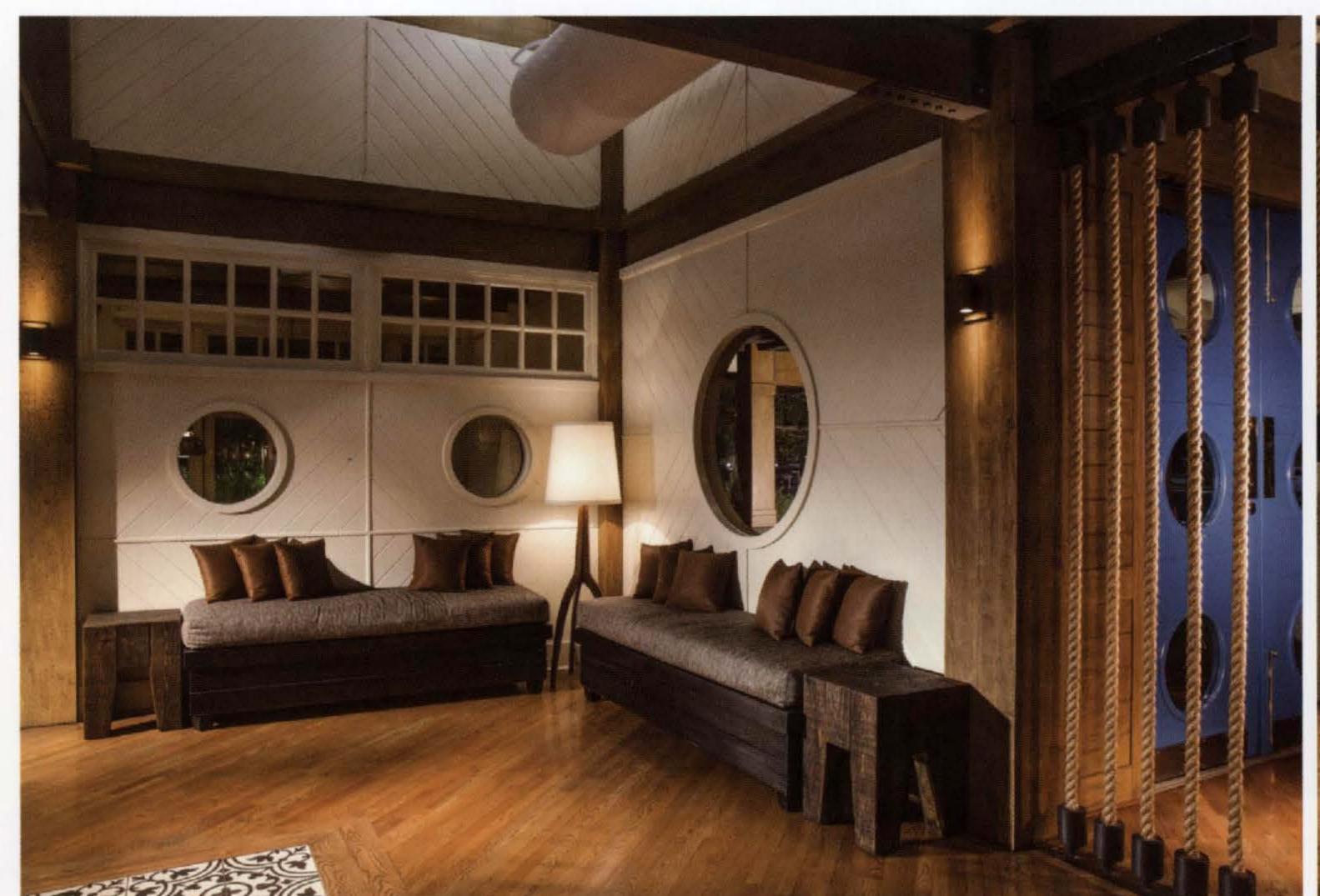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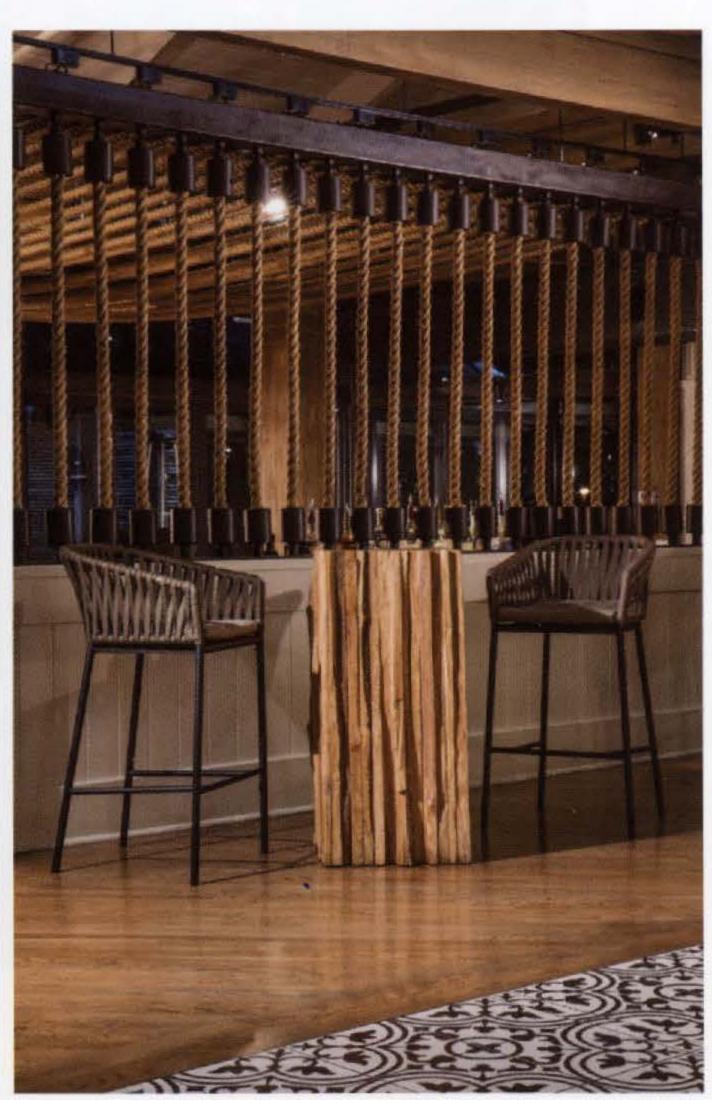


Housed in a 929m², heavy timber frame this nautical space served as an inspiration for this project. Skinned with Cedar panels, the 'Post and Beam' architecture was articulated to create the spirit of the skeleton of a mighty steamer. The bar, location under the 'bell tower', provided a 9m expanse of soaring ceiling to create a Swarovski inspired crew oar sculpture. Salvaged crew oars with original boat, numbers and colors are arranged around a black, spiral, steel frame like crystals draped on a delicate chandelier. The upscale waterfront theme continues with demising walls of ship rope and steel turnbuckles mortised into the floor. The design story required an authentic, re-purposed and yet sophisticated finish that presented a challenge in incorporating thematic design elements while avoiding a final 'theme venue' feel. The entrance features a 60s era Old Town canoe sourced in upstate Maine and meticulously restored. This artful piece is a gesture of youth and vintage folk art. It also serves as the light fixture in front of the azure porthole doors. Below the main bar is what was to be a ceviche bar; the top hand formed and shaped by a classic car chassis fabricator using hand tools and many band aides! The open kitchen and dining room are divided by gilded ship helm 3D acrylic panels which separate the main dining from the private dining room. The lighting design was a combination of framing projectors and theatrical ellipsoidals to highlight the grandiose architecture and elements. Text offer: Bigtime Design Studios

이 프로젝트 영감은 929m² 면적의 중량 목조 구조가 들어서 있는 바닷가 환경에서 얻었다. 삼나무 패널로 마감된 '기둥-보 구조' 건물은 대형 증기선의 골조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고자 지어졌다. '종탑' 아래 자리한 바는 천장이 9m 높이로 치솟아 스와로브스키에서 영향을 받은 노 조형물로 꾸며졌는데, 기존 보트 번호와 색상이 남아있는 재활용 노가 검정 나선형 철골 구조 주위에 마치 섬세한 샹들리에에 매달린 수정처럼 배열되어 있다. 고급 수변 시설 개념은 바닥에 고정된 선박용 밧줄과 강철 나선식 죔쇠로 이루어진 경계벽에서도 계속된다. 디자인 표현을 위해 실감 나고 세련된 재활용 마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제가 분명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되 '주제가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야기됐다. 이로 인해 출입구에는 메인주 북부에서 수거해와 정밀하게 복원된 60년대 올드타운 카누가 비치됐다. 이 예술적 소품은 젊음과 고풍스러운 민속 예술을 상징하며 둥근 창이 달린 파란색 문 앞의 조명 장치로도 사용된다. 주요 바 아래에는 해산물 샐러드 바가 있는데, 클래식 차량 섀시 제작자가 공구와 수많은 반창고를 사용해가며 바 상부를 완성했다. 도금 타륜 무늬가 있는 3D 아크릴 패널은 개방형 주방과 식당뿐 아니라 일반 식당과 전용 식당도 나눠준다. 그 밖에 조명 디자인은 프로젝터와 예술적인 타원형 전구의 조합으로 장엄한 건축 구조와 요소를 강조한다. 글제공: 박타임 디자인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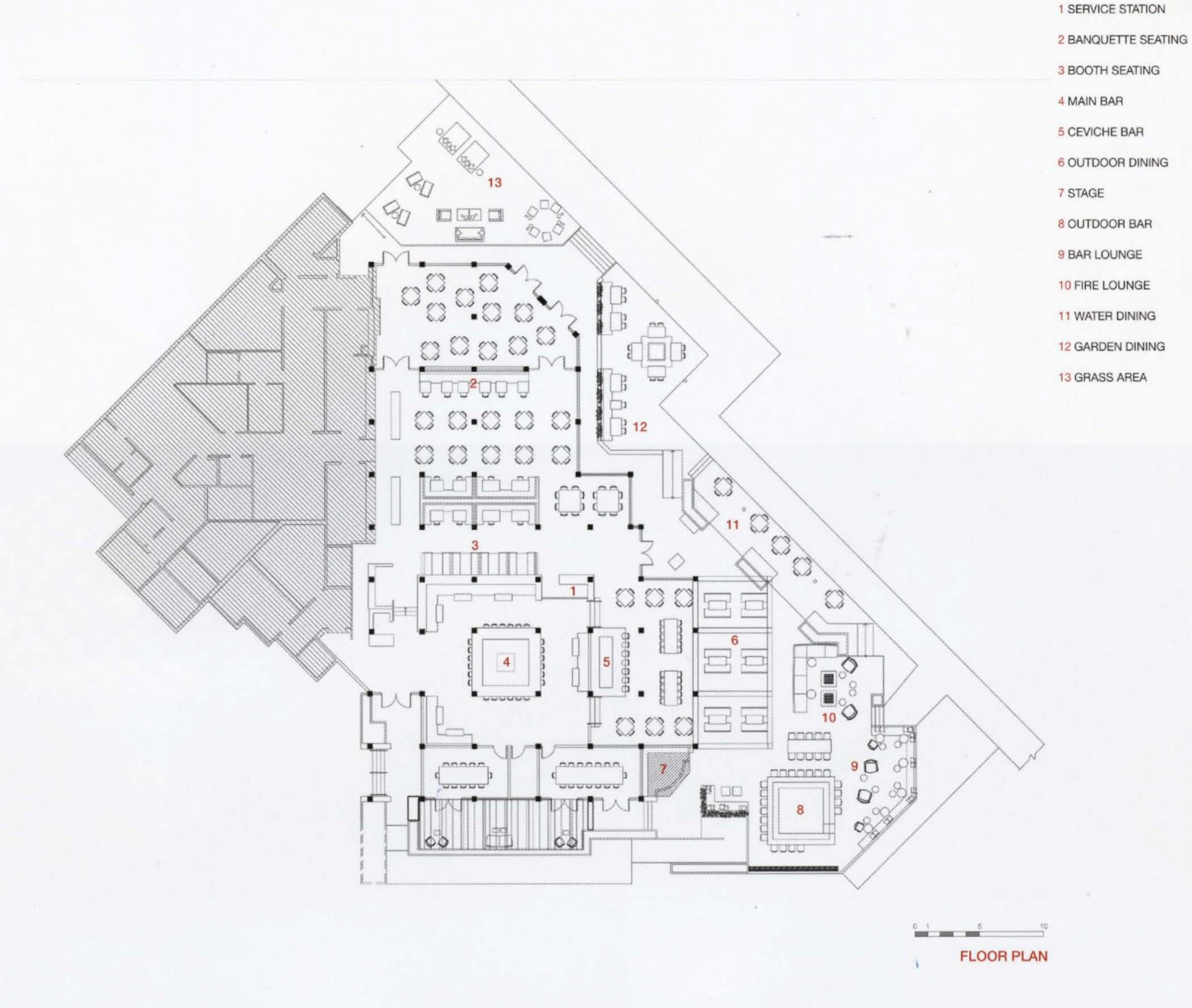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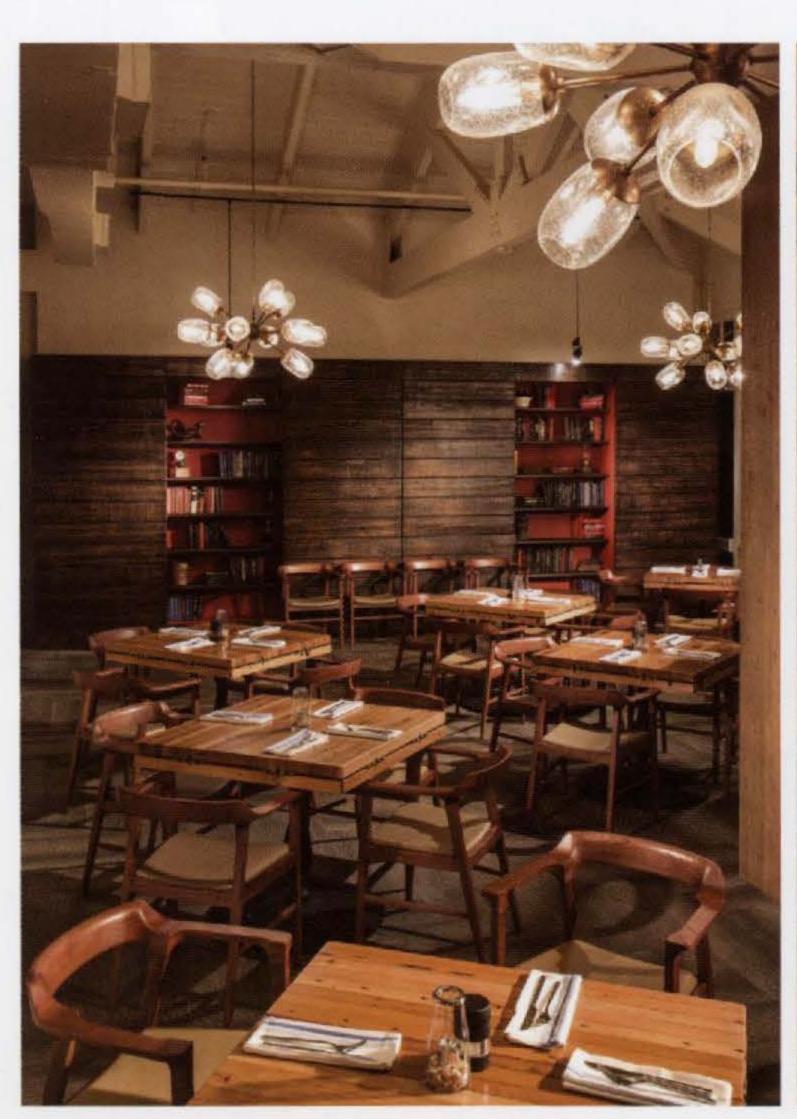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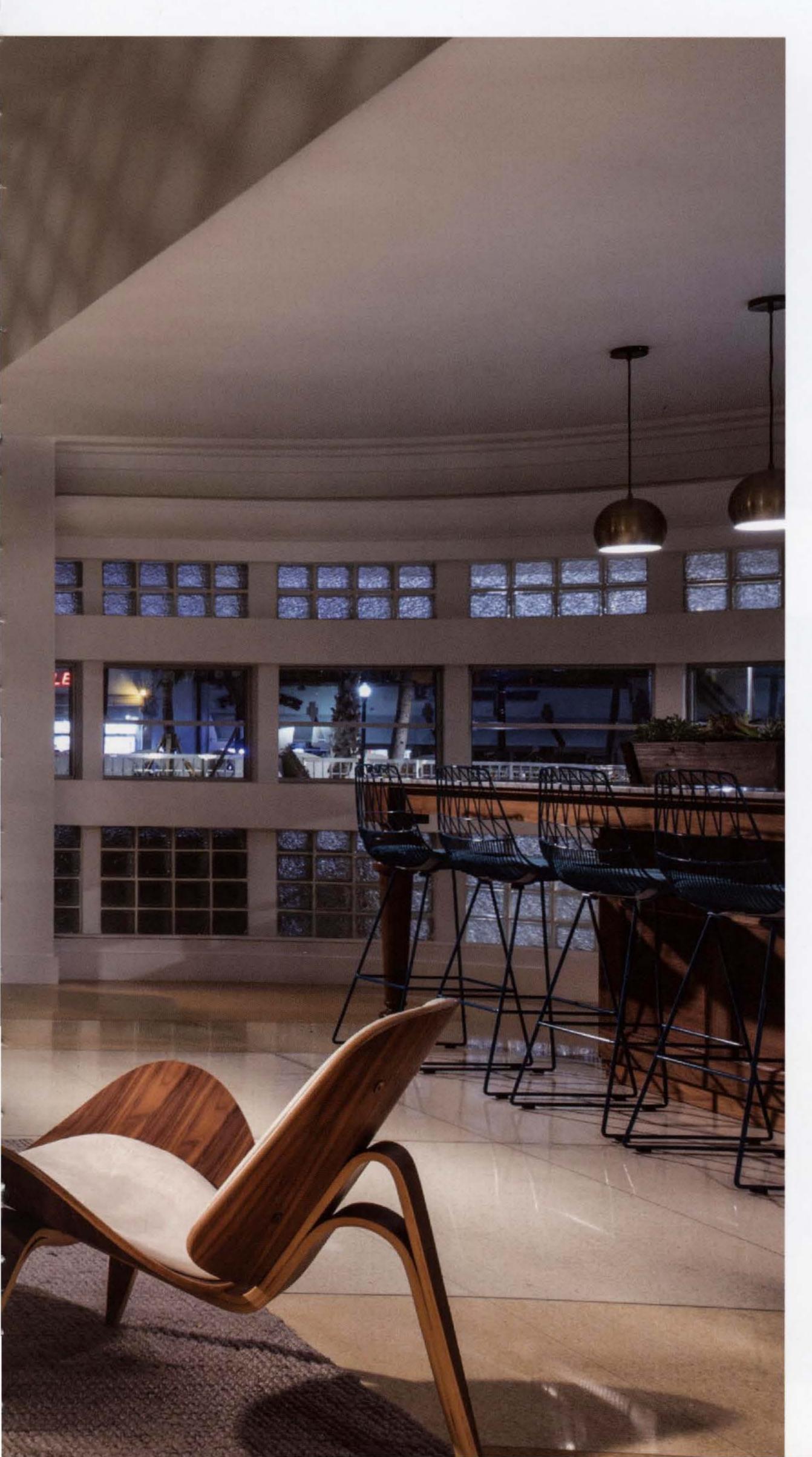




Bigtime Design Studios HOTEL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Location**: Miami Beach, Florida, USA **Built area**: 195m² **Completion**: February 2017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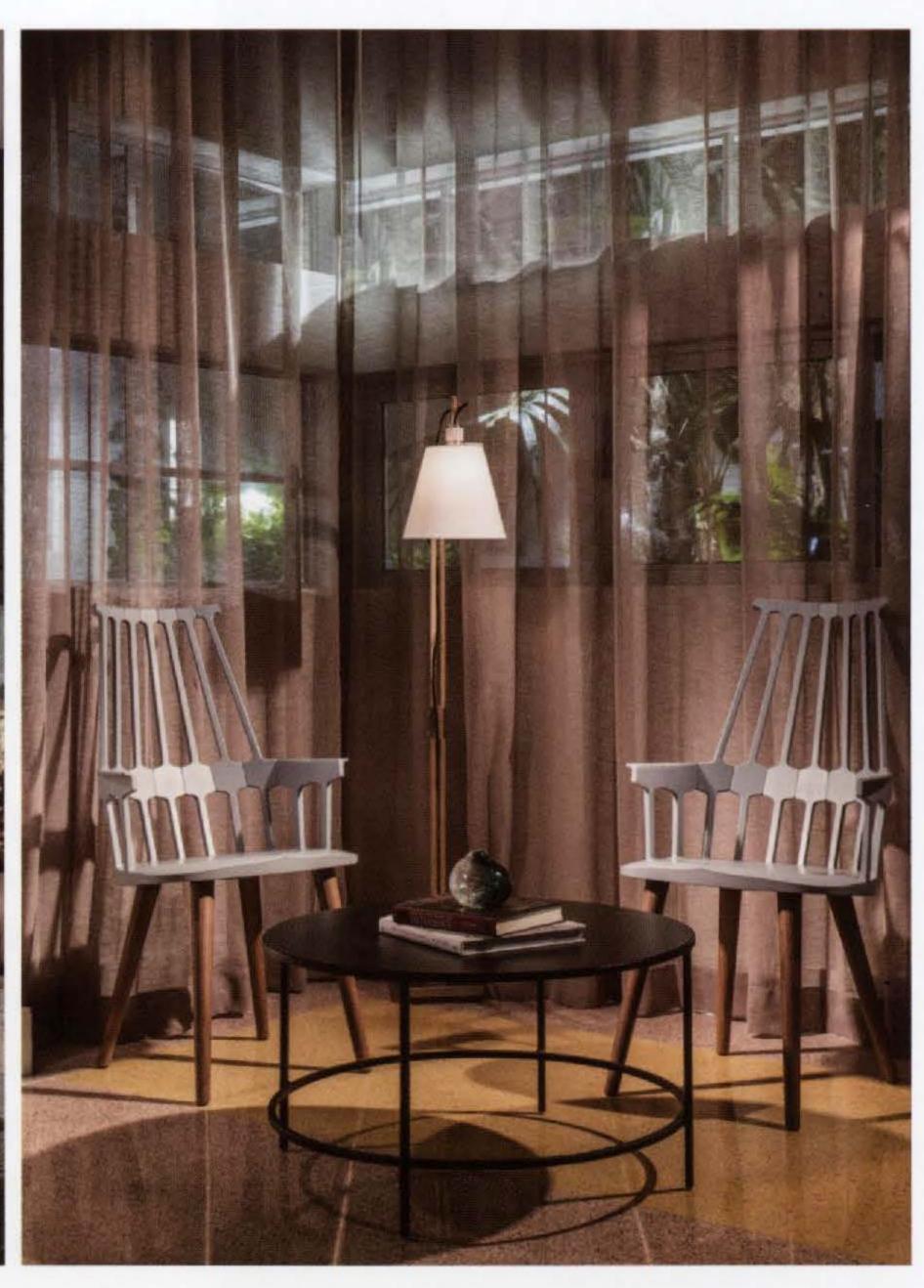


As historic landmark buildings, the concept of what was, what is, and what will be is translated into the public space decor with classic modern language that is both timeless and yet familiar.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Beach this space is part of a collection of five landmark Art Deco structures, combined to make one property. Though each building is an Art Deco jewel in its own right, it is the block long park that became the grounding theme and thread that sparked the overall design concept. More than a boutique hotel, the design concept was to create a whimsical park-like atmosphere as the central hub and focal point for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central space for the obvious and the sublime. Programming included a bar that would not feel 'bar-ish' but as a community table more fit for a global dinner party than a craft cocktail. This bar is a centerpiece and both as overscaled as it is functional. Ownership's intention was to embrace Miami's Latin heritage and the spirit and ethos of Brazil 66 by introducing a stepping off in color and texture. A hint of Brazil 66 playing in the background, mixed with flea market gems, the concept was inspired by the cultural melting pot of South Beach.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was brought back to its 1943 glory, while the interior space is adorned with warm woods, a light and airy palette of off-tone neutrals, whites, grays, with patterns and bold pops of color in art and accessories all South American stylistic cues - woven patterned accents along with handmade tapestry pillows and throw rugs - blend with modern detailing and grounded by the 1940s terrazzo floor brought to its original luster. Text offer : Bigtime Design Studio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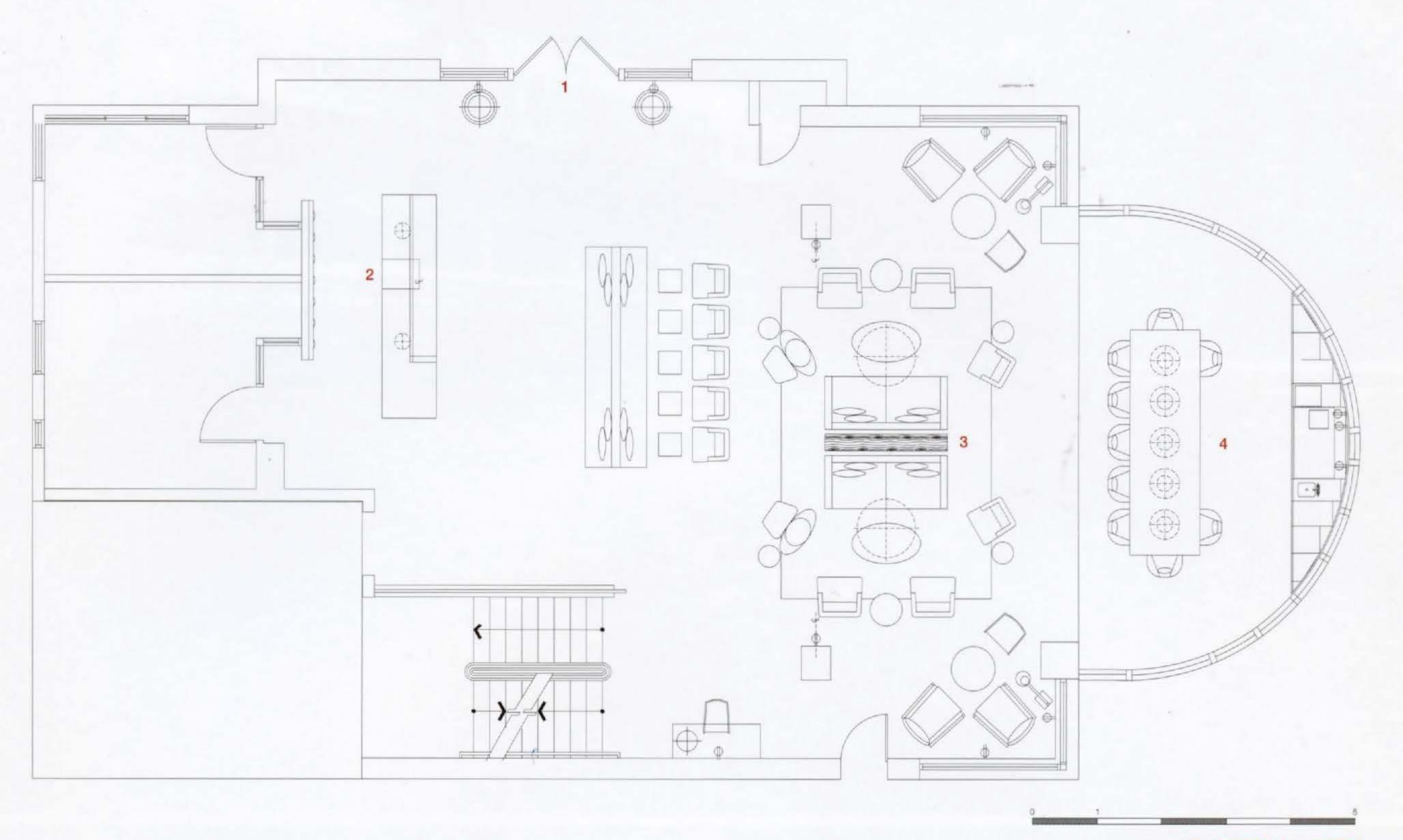
역사적 랜드마크 건물로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친숙한 고전적인 현대 양식의 공용부 장식으로 나타난다. 사우스 비치 중심부에 자리한 이곳은 하나의 시설을 이루는 다섯 동의 아르 데코 구조 랜드마크 건물 일부이다. 각 건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아르 데코 유산이지만, 전체 디자인 개념에 영향을 줬던 주제이자 단서는 한 블록 길이의 공원이었다. 그 결과 디자인 개념은 부티크 호텔을 뛰어넘어 명료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위해 주변 건물을 아우르는 구심점이자 시각적 중심이 되는 독특한 공원형 공간으로 나타난다. 공간 구성에는 '바처럼' 느껴지지 않고 수제 칵테일보다 대규모 저녁 파티에 어울릴 법한 공용 테이블처럼 보이는 바가 포함되는데, 이 바는 크기나 기능적으로 공간의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소유주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색상과 질감을 적용함으로써 마이애미의 라틴계 전통과 브라질 66의 정신, 기풍을 담아낸다. 벼룩시장 소품과 뒤섞여 배경을 형성하는 브라질 66의 단서와 개념은 사우스 비치 지역의 문화적인 매력에서 영감을 얻었다. 건물 외관은 1943년의 영광이 재현된 반면, 내부는 아늑한 느낌의 목재와 채도가 낮은 중간색, 흰색, 회색처럼 밝고 가벼운 색채가 활용됐다. 그리고 미술품이나 장식의 무늬, 강렬한 강조색 등은 모두 남미 분위기를 자아내며, 직조 패턴, 수제 태피스트리 베개, 깔개와 함께 본연의 빛깔을 되찾은 1940년대 테라조 바닥이 현대적인 세부 장식과 조화를 이룬다. 글제공: 박타임 디자인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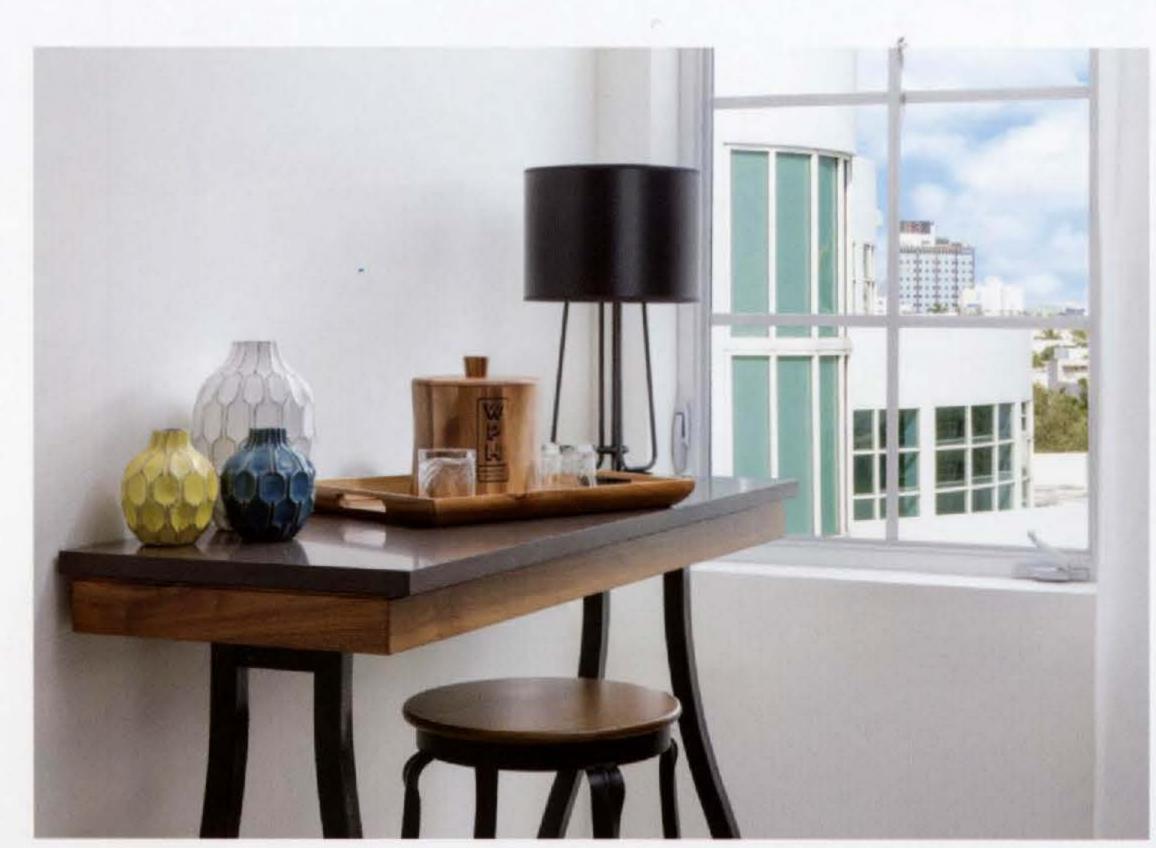




- 1 ENTRANCE
- 2 RECEPTION
- 3 LOUNGE
- 4 BAR



FLOOR PLAN_LOB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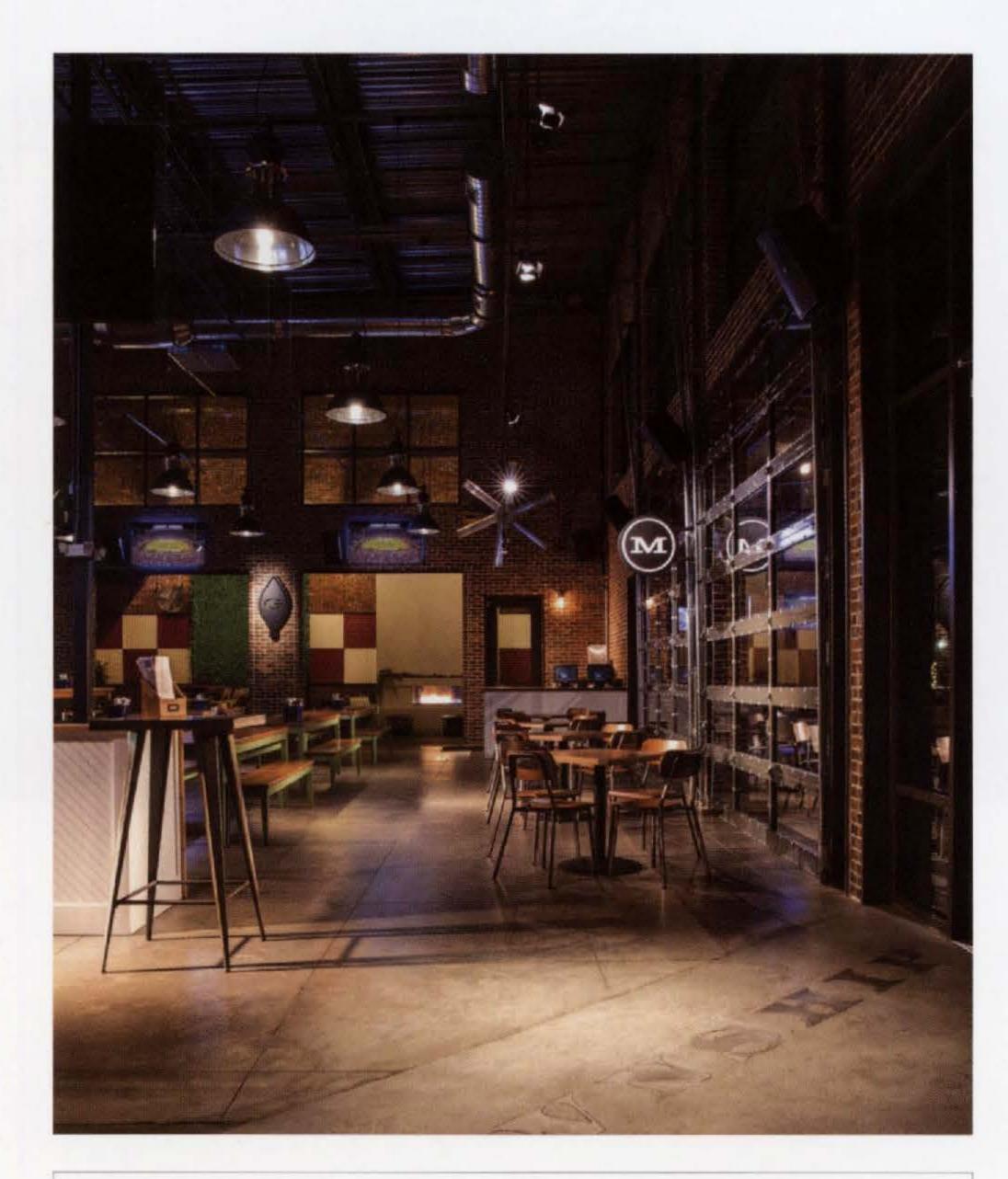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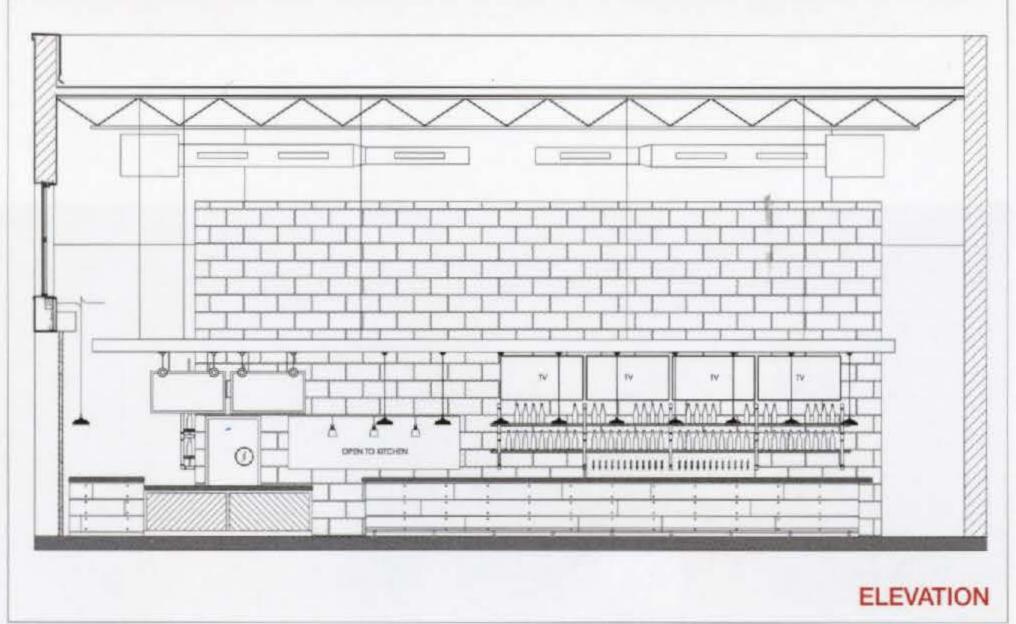




Bigtime Design Studios SHIP

Design: Bigtime Design Studios Client: The Restaurant People Location: Tallahassee, Florida, USA Built area: 743m² Completion: November 2016 Photographer: Craig Denis Editorial designer: Choi Sejung Editor: Kim E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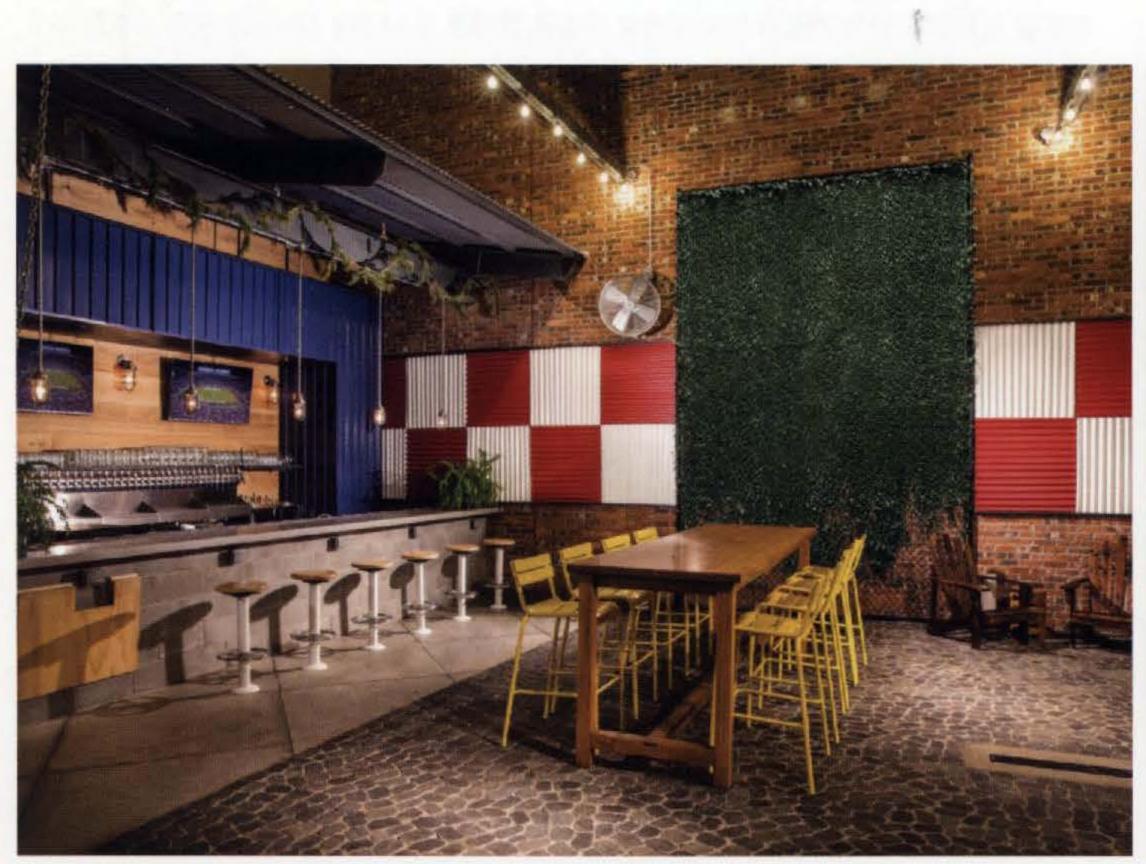
Located in an old train yard, <Township> is part of a repurposed entertainment district in downtown Tallahassee. The developer's vision was to build a new structure that felt original to the industrial area. The designers designed a new building for this very specific concept. As the shell structure was monolithic they created a 'building inside a building' whose exterior provided for an L shaped massive bar dining counter and the interior of the kitchen and back of the house functions. This interior building was intended to feel as though they disassembled an old structure and inserted it into the new. It was clad with oversized glazed tile to resemble an old library or elementary school facade. With 7.6m ceilings in the center of the interior dining room, the perimeter is surrounded by garage doors that emulate a loading dock while functioning as an inside out dining experience alongside a 464m² garden space designed to look like it was once the loading dock and its roof had disintegrated over time. This allowed them to create an open-air space/garden where they provided a retractable roof system so the garden could be utilized year round. To create scale in the space they crafted a steel grid 'awning' that formed an intermediary level in the air and a way to light up the 'baby' building in the 'big boy' building.

Text offer : Bigtime Design Studios

옛 기차역에 들어서 있는 〈타운십〉은 탤러해시 도심의 재개발 오락지구에 속한다. 개발자의 목적이 산업 시대 산물처럼 느껴지는 구조물을 새로 짓는 것이었기에 디자이너는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개념에 부합하는 새 건물을 설계했다. 단일 소재로 되어 있던 기존 외장 구조로 인해 디자이너는 외관이 거대한 L자형 식사용 바 카운터, 주방 내부, 탕비실을 구성하는 '건물 속 건물'을 완성했다. 안쪽 건물은 마치 오래된 구조를 해체한 후 새것에 집어넣은 듯한 느낌을 주고, 대형 시유 타일로 마감되어 옛 도서관이나 초등학교의 전면과 비슷해 보인다. 식당 중앙의 충높이가 7.6m에 달하는 이곳은 하역장 분위기를 풍기는 차고문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때 하역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붕이 파손된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464m² 면적의 정원 곁에서 색다른 식사 경험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는 야외 공간 및 정원을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지붕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공간에 입체성을 부여하고자 공중에 중간층을 형성하는 강철 격자 '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큰' 건물에 있는 '작은' 건물을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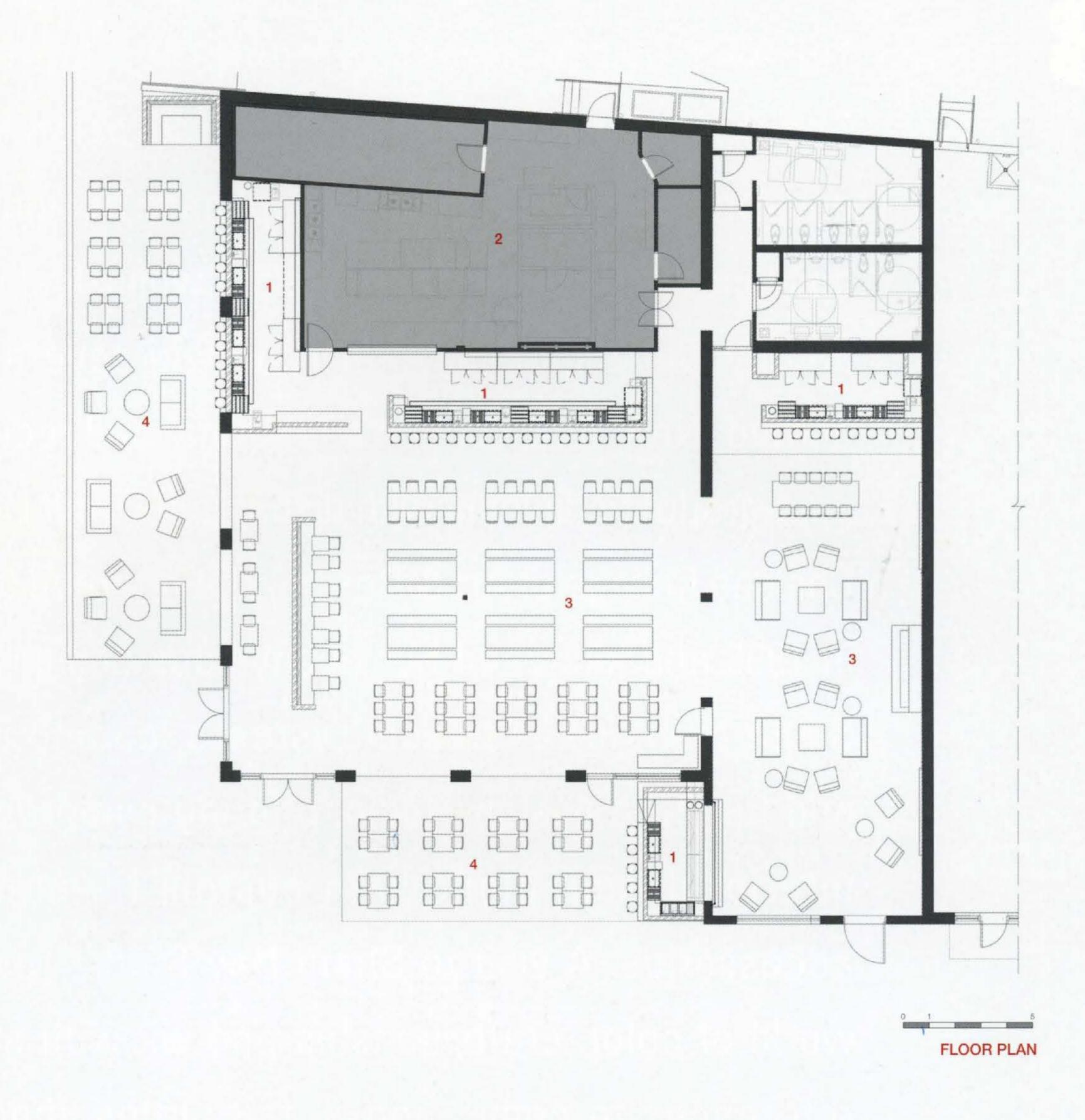
글 제공 : 빅타임 디자인 스튜디오







4 OUTDOOR SEATING







BOB MAGAEINE

POSTCARD INN RESORT

The lobby of this boutique hotel is on the sight of a former gas station on your way to the Florida Keys. The building, though new has a modicum of Googie architecture meant to evoke a road trip escape as you...

>> 070page



CIAO HOUND

The playful and whimsical design concept of <Ciao Hound> was to take the traditional Italian restaurant and turn it on its head with a style and atmosphere unique to the Florida Keys. The location's...

>> 076page



ROOFTOP @1WLO

Rivaling rooftop F&B outlets in Los Angeles, New York City, and Miami, this space is the city's first rooftop bar and lounge. As an upscale casual concept it is surrounded by a panoramic city skyline...

>> 082page



BOB Special - BIGTIME DESIGN STUDIOS

The space is a homage to music as a mediu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usic. As soon as you enter you're confronted with the eight track wall composed of roughly 2,000 eight tracks producing a moiré pattern. The Cha-Ching chandelier centerpiece hangs over the bar. The bar top is butter squash laminate reminiscent of Grandma's kitchen. The rock wall was restored to a flagstone appearance with each

rock painted by hand. Facing the stage you feel the bass from massive speakers hidden behind custom made, oversized speaker grills designed to mimic the look of L100 speakers of the 70s. Approaching the stairway to the 2nd floor you pass a 1.5m tall Tab can. The same can of pop made popular in the 60s. Upstairs the vibe becomes intimately nostalgic. Wood paneled walls, vintage furniture, a 4.8m faux record

console and bookshelf tease the DJ to pull out his record collection. Adorned with tchotchke pieces and vinyl records the bookshelf is the main feature of the room. A chevron pattern laminate top and red, tufted leather bar die beckon you to the bar. Tucked in the corner is a beer and shot bar like one you might find in a friends basement from a bygone era. As a whole the spaces offer something nostalgic...